

#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왜 타락하는 일을 허락했는가?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 목차

하나님은 왜 타락하는 일을 허락했는가?.....	5
8858 아주 큰 오류의 수정 (루시퍼의 타락).....	5
7932 하나님이 타락을 하게 했는가?.....	6
하나님의 공의.....	9
1958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9
8296 하나님은 조상의 죄를 자녀들에게 징계하는가?.....	10
8297 하나님의 공의.....	12
하나님은 왜 예수에게 고난을 허락했는가?.....	14
5092 성 금요일 1951년 3월 23일.....	14
8715 자주하는 질문: 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	15
자원하여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	17
8243 이 땅의 삶에 대해 혼이 알게 되는 것.....	17
2441 하나님이 정한 삶의 길. 자유의지. 행동과 결과.....	19
7051 자유의지에 합당하게 운명이 정해진다.....	19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는가?.....	22
1366 하나님이 보낸 일. 하나님의 허용. 사탄의 역사.....	22
1925 악을 허용하는 일. “모든 악에서 구해주시옵소서.”.....	23
8691 대적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다.....	24
하느님께서서는 왜 고난을 허용하는가?.....	27
3152 사랑과 고난은 정화를 위한 수단이다.....	27
3610 고난의 원인과 목적과 목표. 깨달음. 허무함.....	28
7928 고통스러운 운명적인 일을 당하는 이유.....	29
8273 기형아 탄생의 원인.....	30
8653 질병과 치료.....	32
8980 심한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을 수 있게 한다.....	33
하나님은 왜 자연재해와 불행과 파괴하는 일을 허용하는가?.....	36
2313 일찌기 파괴하는 일과 그의 결과.....	36
2449 자연의 재난과 그에 대한 영적인 설명.....	38
5503 세상 재물을 잃는 일이 영적 보물을 얻게 할 수 있다.....	38
8812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1964년 6월 11일에 쾰른에서 일어난 불행한 살인 사건) .....	39

하나님께서서는 왜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허용하는가?.....	41
3258 이 땅을 일찍 떠나는 일. 목적.....	41
4033 죽음의 순간. 고난에 대한 설명.....	42
8772 어린 아이들의 죽음.....	43
7170 많은 죽는 일에 대한 설명. 저세상의 문이 잠김.....	45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을 허용하는가?.....	47
2400 고통이 의로운 사람에게, 불의한 사람에게 임한다.....	47
3318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 싸움의 끝.....	47
8033 다가오는 자연재해.....	49
3184 하나님이 허용하는 믿음의 싸움.....	51
8624 시험으로 인한 지구의 파괴.....	52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연합.....	54
0770 삶에 불화가 필요하다.....	54
6015 모든 일이 온전하게 되도록 돕는다.....	55
6277 운명적인 사건. 아버지의 사랑.....	56
6290 운명적인 일. 해결 수단.....	57
7145 일어나는 가장 작은 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근거를 두고 있다.....	58
7773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	59
7524 운명적인 인생은 성장에 도움이 된다.....	60

## 하나님은 왜 타락하는 일을 허락했는가?

아주 큰 오류의 수정 (루시퍼의 타락)

B.D. No. 8858

1964년 9월 23일

**원** 초에 나로부터 단지 온전한 것만 창조되어 나왔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순수하지 못한 영들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설명하는 것을 접하면, 너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시할 수 있다. 나 자신이 모든 존재를 창조한 창조주이다. 왜냐면 나 외에는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나로부터 가장 먼저 창조된 빛의 영은 내 능력으로 채워졌고 우리 둘의 사랑의 의지와 능력으로부터 단지 온전한 존재만이 창조되어 나올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 내가 내 영원한 질서를 어기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나로부터 온전하지 못한 존재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존재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나를 떠날 결정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게 나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는 전적인 자유의지 가운데 행했다. 이로써 내가 너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목표로 정한 내 영원한 계획을 너희는 비로소 이해할 것이다. 너희는 왜 빛의 전달자인 루시퍼가 내 반대의 극이 되었는지를 이해할 것이다.

만약에 너희에게 존재들의 창조에 관해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일어난 것처럼 설명이 주어지면, 너희는 내 온전함에 의심을 할 것이다. 그럼 너희는 내 의지에 의해 처음부터 부족하게 창조된 모든 존재들에 대한 내 사랑을 의심할 것이다. 너희는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한 과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 모두에게 이에 관해 진리를 전해 줘야만 한다. 왜냐면 오류는 계속해서 다른 오류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시에 이런 오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항상 혼란을 일으키려는 내 대적자에 의해 사용된 이성의 생각의 결과이다. 이로 인해 내가 너희를 모든 순수한 진리 안에서 인도하기 위해 항상 또 다시 새로운 계시를 해줘야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로부터 타락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일어났다. 이런 타락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영원에 영원의 시간이 흘러갔다. 이 전까지는 계속하여 내 사랑이 존재에게 흘러갈 수 있었고 계속하여 그 들은 넘치고 축복된 상태 가운데 있었다. 내가 내 사랑을 비추어 주기 위해 나에게 첫 번째 그릇으로 창조한 존재는 영원에 영원 동안 그가 신적인 피조물로서 소유하고 있었던 자유의지로 나로부터 떠날 때까지 이 사랑의 힘의 흐름을 받는 자였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순수하지 못한 존재를 창조 했으면, 이런 존재를 창조한 나 자신에게 비난이 임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온전함 자체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부족함도 없다. 나는 순수한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 어

던 것도 순수하지 못한 것을 창조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순수하게 되지 못한 자들을 다시 정화시키는 곳으로 인도하게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잘못되게 창조의 과정을 너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가. 이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가.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순한 진리를 전한다. 왜냐면 이런 순수한 진리가 없이는 너희는 나 자신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온전함에 의심을 품게 되는 나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는 너희가 그의 온전함을 의심하는 이런 존재를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원래의 너희가 존재했던 것처럼 다시 되기 위해 너희가 깊은 곳을 향한 길을 갔지만 너희는 나로부터 모든 온전함 가운데 창조되어 나온 존재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영적인 이유를 설명해줄 수 없는 것을 나를 대적하며 거절한 죄의 결과로써 너희가 소유하게 된 작은 깨달음 가운데 있는 너희는 이해할 것이다.

그렇지라도 이 작은 깨달음에 너희에게 알려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이 작은 깨달음이 만약에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에 아주 큰 모순이 있으면, 너희는 이를 고려할 것도 없이 거절할 수 있게 해주고 대적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이성이 참여했다는 설명을 너희에게 해줄 수 있다. 내가 창조한 존재들을 하나님처럼 만들려는 계획만이 나로 하여금 존재들이 나로부터 타락하는 것을 막지 않게 했다.

그러나 최고로 높은 온전함의 상태에서부터 최고로 깊은 곳으로 떨어진 타락은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일어난 일이다. 내가 이런 모든 존재를 다시 얻는다는 확신만이 나로 하여금 이 타락을 막지 않게 했다. 존재들이 빛의 전달자로서 제일 먼저 타락을 한 자신의 주인과 같이 최고로 온전한 상태로 창조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라.

내가 그가 타락해야만 하게 그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의 자유의지가 그의 타락의 원인이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래 그가 존재했던 것처럼 다시 되기 위해 그는 자유의지로 높은 곳을 향해 추구해야만 한다.

아멘

하나님이 타락을 하게 했는가?

B.D. No. 7932

1961년 7월 2일

**언**젠가 너희 사람들은 나 자신이 내 밖으로 자유하고 자립적인 존재로 생성되게 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절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음을 지금까지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존재들을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로 창조 하였을 때 자유의지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 자유의지는 아주 작은 영향력이라 하더라도 내 뜻에 내 사랑의 비추임에 또는 어떠한 영향 아래 묶여져 있지 않았다. 이 의지는 전적으로 자유 했고 모든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존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언젠가 피조물의 상태에서 변화되어 자녀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을 한다. 자녀가 되는 일은 자유의지가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그러나 존재를 창조할 때 내 목표는 최고로 온전한 상태에 있는 존재로써 그러나 이런 온전함에 스스로 도달해야만 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너희 사람 안에 나를 떠나 타락

하려는 생각을 내가 존재에게 넣어 주었는지 내가 존재를 창조할 때 올바른 자녀들을 만드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존재들이 타락을 해야만 하지 않았는지 항상 질문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타락해야만 했으면, 너희는 타락한 원인이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 존재들의 자유의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영원으로부터 내 피조물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보았고 그러므로 이런 타락에 기초한 목표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타락뿐만 아니라 이런 목표도 나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타락은 자유의지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타락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다시 자유의지의 결과이다. 이 목표에 언젠가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존재가 스스로 다시 목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한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가 다른 하나에 근거함을 내가 존재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타락하는 일이 있을 수 없었음을 말해야만 하고 그러면 내가 모든 존재를 창조했을 때 가졌던 목표가 이 전의 측량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시간 가운데 이뤄졌을지라도 존재들에게 단지 최고의 축복을 의미하는 목표가 필요 없음을 말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유의지로 존재들이 타락한 것은 나에게 내 사랑에 대항하는 범죄였다. 왜냐하면 존재들이 자신의 의지를 내 의지와 같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존재들이 나를 떠나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벗어날 필요가 없었다. 셀 수 없이 많은 나에게 머물렀을지라도 넘치게 축복된 존재들이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벗어날 필요 없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이런 존재들에게 만약에 그들이 타락한 형제의 구원을 위해 깊은 곳의 과정을 가기 원하면, 하나님의 자녀 권에 도달할 수 있게 허용이 되었다. 나를 떠나 타락한 일은 내 작품이거나 내 뜻이 아니다.

그러나 최고로 높은 목표 때문에 내가 타락하게 놔두었고 나는 항상 또 다시 존재들이 최고의 사랑 가운데 있었음을 그들에게 가장 밝은 빛이 비쳤음을 그러므로 그들의 의지가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한 일은 그들의 의지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이로써 불행한 상태를 가져왔다는 것을 강조한다. (1961년 7월 2일)

나는 타락을 방해하지 않았다. 방해했으면 나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는 증거인 의지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의지의 자유가 없는 온전함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언젠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표에 도달하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내 계획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비록 타락이 내 사랑에 대적하는 큰 죄일 지라도 영들이 타락한 것을 다르게 관찰할 것이다. 영원한 질서의 법칙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처럼 만드는 일은 항상 단지 법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를 창조할 때 그들 안에 넣어 준 모든 신적인 성품들을 자유의지로 추구해야만 하고 나를 떠나 타락함으로 인해 추구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고 자유의지로 온전한 상태에 남는 것보다 더욱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존재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나를 대적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주 긴 기간 동안 극심한 고통의 상태를 그들에게 가져오게 했다.

나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이런 타락을 하게 원인을 제공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존재들이 온전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라도 존재들은 타락했다. 이는 단지 신적인 은혜의 선물이고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의지의 자유로 설명할 수 있다.

타락한 영의 존재들의 귀환의 과정을 통해 타락하지 않은 영의 존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권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왜냐면 이 존재들은 자유의지로 구속하는 사명 때문에 깊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기 위해 나를 떠나 타락한 것만이 유일한 조건이 아니다.

나는 진실로 내가 창조한 존재들을 내 자녀로 만들기 위한 다른 길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타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의지의 자유 때문에 타락하는 일은 가능했다. 나는 영원으로부터 타락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창조한 존재들을 넘치게 축복 되게 하는 내가 언젠가 도달할 목표를 가진 구원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너희 자신이 언젠가 전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되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해당되는지 이 사랑이 항상 단지 선한 것을 줄 수 있고 그러므로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에 도달한 존재들을 다시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도울 것임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B.D. No. 1958

1941년 6월 18일

**사**람들은 아주 자주 하느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느님이 명백하게 불공정한 일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런 일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행하거나,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일은 항상 그의 목적과 일치한다. 사람 자신이 하는 일은 매우 현명하게 생각한 것이고, 인간은 모든 일이 왜 그렇게 이뤄져야 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선하지 않고, 고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허락을 하고, 이런 일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원인이 된다.

인간의 의지가 그의 행동에 결정적이다. 하나님은 이런 의지에 큰 자유를 허락한다. 인간은 이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시작하거나, 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불의가 행해지자 마자 모든 불의를 처벌하기 원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곧 단지 선한 일만이 이 땅에서 행해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충동을 따라 행할 수 있지만, 행하지 않고, 단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행동을 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에게 공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왜냐면 모든 행위가 속죄나 보상을 받지만, 단지 사람이 좋게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나 하나님의 모든 표현은 연관된 지혜로운 목적이 있다. 심지어 하나님이 벌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벌을 잘못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의 수단이 되게 한다.

하나님은 무한한 긍휼을 가지고 있고, 인내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불의를 바로잡거나, 적어도 불의를 깨달을 기회를 주기 위해, 항상 또 다시 주저할 것이다. 왜냐면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거나, 자신이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할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불의를 저질렀다는 깨달음이 그의 심장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되어야만 한다. 이로써 이런 깨달음이 그의 계속되는 생각과 행동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보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공의를 대신한다. 그러나 이런 역사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제외시키지 않는다.

사람이 자신의 불의를 깨닫고, 자신을 고귀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왜냐면 그런 일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지혜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공의를 위해, 절대로 서둘러 이 땅에서

인간의 성장 과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사람이 언젠가 의와 공의에 따라 판단을 받는 일을 절대로 피하게 해주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조상의 죄를 자녀들에게 징계하는가?

B.D. No. 8296

1962년 10월 11일

**잘**못 된 생각이 너희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잘못 된 생각이 다시 많은 잘못 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순수한 진리 때문에 설명을 갈망을 하면, 너희는 설명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내 공의를 믿어야 하면, 너희는 나를 불의하게 벌을 주는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며 가르치는 나에 대한 잘못 된 개념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아버지의 죄를 4대에 걸쳐서 벌하리라”는 말을 의미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이런 잘못 된 관점을 너희에게 가르쳐 왔다.

내가 공휴일이 없어서 아버지의 죄를 자녀의 자녀까지 대가를 치러야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모든 혼이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대한 책임이 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영접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이미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만 한다.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자녀에게 까지 아버지가 지은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효력이 나타나는 죄는 단지 특정한 죄의 자연적인 결과이다. 죄악 된 아버지의 삶으로 인한 연약함과 신체적인 장애, 혼의 특성이 나타난다. 이런 나타나는 효과는 이웃들도 볼 수 있다. 이제 연약함과 장애를 내 편에서 주는 별로 여기고 있다.

죄악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동안에 스스로 자신의 자녀들의 불행에 대한 죄의식을 가질 수 있고 자신에게도 벌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이런 의식을 통해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에 대해 공의로운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죄를 십자가 아래로 옮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사함과 구속을 구할 때 비로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마찬가지로 벌을 받게 된 자녀는 바로 힘든 운명을 통해 빠르게 혼의 성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런 이 땅의 과정을 의식하며 스스로 짊어진 혼들이다.

왜냐면 이 전에 혼들에게 이런 운명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운명을 자신이 짊어지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항상 단지 혼의 성장에 관한 일이고 인간으로써 육신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크게 또는 적게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이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는 것보다 빠르게 완성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아직 알지 못하는 너희 사람들에게 인간으로 사는 삶이 너무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에 근거한 어려운 운명을 맞이하면, 항상 불공정한 것으로 원망한다.

귀환의 과정을 위해서는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 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항상 단지 불행한 상태를 내가 사랑이 없고 불의 한 것으로 바라보고 이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자연적인 것이던 영적인 것이던, 법칙에 따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불의는 어떤 경우에는 분명하게 그러나 나타나지 않게 그의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항상 내 영원한 질서를 어기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다.

단지 내 공의가 사람들에게 그가 아직 이 땅에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게 아주 지나치게 큰 짐을 가지고 저세상에 들어가지 않게 짐을 덜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하고 저세상으로 가면, 그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석을 찾지 못했으면, 이 땅의 삶에서 그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책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면 그는 이미 한걸음 성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서 범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저세상에서 무능력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그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도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의지는 그의 사랑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제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가 그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들을 혼들이 자주 자신과 같은 성향을 깨달아서 이런 사람들과 연결 된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들 편에서 돕기 위해 혼들이 의식적으로 어려운 이 땅의 과정을 짊어진다.

아버지의 죄가 4대에 걸쳐서 벌을 받을 거라는 말은 내 영원한 질서를 심각하게 어긴 것이 자연법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단지 이해해야 한다. 내가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결과가 다시 다른 혼들에게 그들이 높은 곳을 향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처신할지는 혼이 다시 새롭게 육신을 입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의지인 것처럼 사람들의 가장 자유로운 의지이기 때문이다. 이를 내 편에서 벌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면, 이는 오류이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혼에게 닥치던지 간에 이 땅의 삶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던지 간에 혼에게 단지 최선의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떤 혼들은 그들 스스로 높은 사랑의 정도에 도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높은 사랑의 정도에 도달하려고 했으면 그의 고난은 줄어들고 그의 이 땅의 운명은 쉽고 견딜만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고난의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항상 단지 내 불의로 보기를 원하면, 내 영원한 구원계획에 대한 너희의 무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너희가 항상 단지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절대로 저주하지 않는 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영원에 비하면 이 땅의 시간은 단지 짧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너희 사람들은 영원을 위해 많은 보물을 모을 수 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그에게 너희의 죄를 사해주기를 구하면, 너희는 많은 불의의 대가를 치를 수 있고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내** 공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어떤 사람이 드렸던, 그리고 앞으로 드릴 것인 희생보다 가장 힘든 희생을 나에게 드린 인간 예수를 통해 이런 공의가 만족 되었다.

왜냐면 그에게 전적으로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인류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이 죄를 짊어졌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닌 인류의 모든 죄짐을 자유의지로 자신이 짊어졌다. 그는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했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만 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너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면 모든 죄는 비록 이 죄를 이웃에게 범할지라도 나 자신을 대적하는 사랑에 대적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실제 너희가 범죄한 불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모든 종류의 어려운 일들로 이제 너희의 최악 된 삶의 방식이나 또는 행동의 결과인 고통을 당할 기회를 이 땅에서 받아 일부분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고통은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대적하고 너희의 이웃을 대적하였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온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가져가기 위해 너희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 너희 스스로 그에게 용서해주기를 구할 때 너희는 비로소 너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너희는 너희가 당하는 모든 불화와 모든 운명적인 일을 통해 너희가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교육의 수단으로보다 너희가 자유의지로 악을 떠나고 가능한한 다시 선하게 만들려고 수단으로 다시 말해 저세상에서 스스로 깨달음에 도달할 때까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해야만 할 필요가 없게 이 땅에서 이미 속죄를 행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축복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또는 저세상에서 아주 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가 한때 너희가 나를 떠난 원죄이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용서를 구해야 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은 죄이건 간에 너희의 죄를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빛의 나라의 문이 열리게 그에게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너희가 죄로부터 구속을 받지 못하면, 너희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가 항상 또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다.

너희가 아직 큰 고통을 당해야만 하면, 너희들로 하여금 언젠가 십자가로 가는 길을 택하게 하는 유일하게 모든 죄를 그의 구속사역을 통해 속죄할 수 있는 예수에게 가는 길을 택하게 하는 교육적인 가치를 항상 가지고 있다.

너희는 항상 모든 사람이 그가 현재 거하고 있는 자신의 불행과 자신의 어려운 삶의 환경과 자기 자신의 상태를 혼 스스로 자유의지로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혼들이 그들 자신의 책임인 그들의 죄짐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서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책임이고 이런 불행한 상태를 견뎌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자유의지로 행해야만 그들은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다.

종말의 때에 성장 정도가 아주 낮은 많은 혼들이 그들의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나가버린, 이제 이런 성숙하지 못한 혼들이 자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혼들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죄악이 특별하게 커서 어려운 삶의 환경이 여러가지 종류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이를 설명해줄 수 없고 그들은 내 사랑과 공의를 의심을 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혼들이 다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게 된 것으로 잘못 영접한다.

그러나 이런 혼들은 이 땅의 창조물의 모든 과정을 거친, 높은 성장을 이루지 못한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모든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혼들이 육신을 입은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단지 의뢰하면,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그의 의지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예수에게 단지 도피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존재들도 그들의 의지의 자유와 생각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종말 전에 얻기 위해 최고의 교육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그들이 어두움의 권세자와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특별하게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나를 나타나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주인을 선택할지 그들 스스로에게 맡겨야 두어야만 한다. 종말이 임하면 그들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 그들의 상태가 이뤄질 것이다. 그들은 생명의 도달하거나 다시 오랜 기간 동안 죽음의 상태에 빠질 것이다.

아멘

## 하나님은 왜 예수에게 고난을 허락했는가?

성 금요일 1951년 3월 23일

B.D. No. 5092

1951년 3월 23일

그리스도의 고통.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비슷하게라도 이해하게 해줄 수 없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들의 온전하지 못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죄의 희생자가 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들의 악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은 그에 대항해 어떤 의미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빛의 혼이 지옥에서 나온 것에 몸을 떨어졌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혼은 모든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더러운 것과 사람들의 악의에 의해 그는 공포를 느꼈다. 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혼이 몸에게 가해진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

혼은 어둠 속에 있었고 혼의 빛은 어둠을 견딜 수 없었다. 그럴지라도 혼이 어둠을 피해 도망치지 않았다. 왜냐면 혼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잔을 끝까지 마시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혼은 스스로 자신의 빛을 버렸다. 버리지 않았다면 인류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를 위해 예수의 사랑이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원했던 일이 혼에게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혼은 자신의 빛이 역사하지 못하게 했고 어둠 가운데 거했고, 이 어둠이 혼을 아주 괴롭히고 두렵게 했고, 혼의 고통을 천 배로 크게 했다. 왜냐면 혼이 받는 고통이 육체의 고통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온전하게 된 사람이 단지 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는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의 죄 가운데 거했다. 그의 나라는 빛의 나라이고, 세상은 사탄의 나라였다. 이런 사탄의 나라에서 빛의 혼이 폭력을 당했다. 이 땅에 살았던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였던 혼이 헤아릴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지옥에서 혼에게 손을 펼쳐 혼을 사로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혼을 꼼짝하게 놀라게 한 손이 자신을 붙잡게 해야만 했다. 혼은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들어야만 했다. 혼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세계를 떠나 무방비 상태로 어둠에 자신을 맡겼다. 이런 일은 구속 역사를 성취하려는 자신의 영원한 의지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적게 끔찍한 일이 아니었다. 왜냐면 혼이 겁에 질렸고 쓰러질 정도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외쳤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혼은 이 순간에 더 이상 자신의 사명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고, 혼은 자신이 갈망하고 자신의 고통 가운데 외친 하나님과 빛으로부터 단지 분리된 것을 느꼈다. 이런 일은 인간이 이 땅에서만 견뎌야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잔인한 일이었다. 왜냐면 그가 육체의 고통을 견뎌야 할뿐만 아니라 혼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인류는 이런 혼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힘든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예수가 견뎌던 수준의 고통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는 이미 오래 전에 이런 고통에 대해 알았고 그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기도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는 일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그의 혼의 의지였고, 혼이 자신의 운명에 순종했다. 왜냐면 고통받는 인류를 향한 사랑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죄짐이 아주 커서, 단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속죄의 제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러므로 인간 예수가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그가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의 몸과 혼이 스스로 짊어진 모든 고통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그의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아멘

자주하는 질문: 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B.D. No. 8715  
1964년 1월 4일

**너**희 사람들은 만약에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었다면, 너희의 죄로 인해 나타나는 영향력을 상상할 수 없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가 단지 제한된 범위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러나 원죄로 인한 영향력은 무제한하다는 것을 말한다. 왜냐면 내 법칙은 영원히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은 깨달음에 반대로 나를 대적하며 지은 죄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죄를 지은 존재들이 마찬가지로 영원히 불행한 가운데 영원히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와야만 한다. 그러므로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이런 상태를 감수해야만 했다. 왜냐면 내 공의가 단순하게 이런 죄를 속죄함이 없이 제거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 스스로는 속죄를 행할 능력이 없었다. 왜냐면 존재들이 어떠한 죄값을 치르고 죄짐을 벗게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고 존재들이 사랑 자체에 대항해 죄를 지은 것 이어서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속죄는 단지 다시 사랑을 행함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존재의 내면에서 사랑을 불 지펴야만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의 크기를 깨닫고 긴밀한 사랑으로 나에게 죄사함을 구해야만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타락한 존재들에게는 불가능했다. 왜냐면 그들은 전적으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상쇄할 수도 없다. 왜냐면 그들은 전적으로 굳어져서 그들의 자기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와 더 이상 의식적인 연결을 할 수 없었다. 이는 다른 말로 생명으로 창조된 것이 죽음이 된 것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나에게 귀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제 나는 내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런 죽은 자들을 연약한 생명으로 다시 깨어나게 했다. 그러나 존재들을 나로부터 끝 없이 멀리 있게 만든 큰 원죄는 계속 존재했다. 이런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남김 없이 나에게 돌아올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어떤 타락한 존재도 이렇게 할 능력이 없었다. 왜냐면 그들은 전적으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으로부터 모든 것을 미리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서 자유의지를 빼앗기를 원하지 안 했기 때문에 나로부터 존재들이 타락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영원으로부터 이런 타락한 존재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길을 미리 보았다. 나는 귀환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다.

영원한 구원계획을 수행하는데 나에게 남은 모든 존재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찾고 있고 계속하여 내 사랑의 비추임을 받고 있고 빛과 능력을 충만히 가지고 있다. 그들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중단하지 않고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 도움 주는 일을 하게 한다. 영적인 존재들은 귀환을 위한 목적으로 창조된 창조물의 과정을 거친다. 그들의 사랑이 그들 스스로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창조물의 과정을 가는 길에 필요한 형체를 만들기 위해 창조하고 조성하는 일을 하게 한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들이 새롭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성장 정도에 도달한다.

그렇지라도 그의 큰 원죄는 해결되지 않았고 해결될 수도 없었다. 왜냐면 존재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버렸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빛의 존재가 이 죄사함을 위해 자유의지로 자신을 제공했다. 왜냐면 그는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사랑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고통과 고난이 있는 곳에 도와주기 위해 모든 것을 자신이 짊어지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이 이 원죄의 크기를 측량할 수 있으면, 너희는 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정도의 고난을 짊어져야만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랑이 그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으면 절대로 사람이 건딜 수 없었음을 이해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이다. 단지 사랑이 인간 예수가 자유의지로 자신에게 짊어졌던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견디어 내었다. 그는 모든 것을 타락한 존재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에게 축복으로 돌아 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빛의 존재로서 그는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드렸다. 빛의 존재로서 그는 그가 무엇을 앞두고 있는지 측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랑이 그가 인간으로서 받아들인 운명보다 더 컸다.

왜냐면 빛의 존재는 계속하여 나와 연결이 된 것을 알았고 사랑이 내 원래의 성품이기 때문에 내가 내 원래의 존재로 인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능력을 제공받을 것을 알았다. 실제로 인간 예수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고통을 견디었다. 그러나 수많은 존재들의 원죄의 크기가 내 공의에 합당한 피할 수 없는 그렇지 않았으면 넘치는 사랑과 긍휼로 사해주었을 이 죄를 속죄를 하기 위해 이런 정도의 고난을 요구했다.

타락한 존재들의 불행한 상태는 속죄의 행해지지 않았으면, 영원이 지속되는 상태였다. 그러나 예수의 고난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었다. 예수는 제사를 나에게 자원해 드렸다. 왜냐면 비록 그의 구속의 시점은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의지를 통해 스스로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는 이로써 원죄로부터 모든 세상을 구속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의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은 모든 타락한 존재들에게 그들의 죄의 사함을 가져왔다.

모든 개개인의 존재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는 귀환의 길을 갈수 있게 만들어 졌다. 이는 그의 넘치는 사랑으로 다시 기회를 주어서 사람들 스스로 자신 안에 사랑을 불지피, 그들의 성품을 바꾸고 원죄를 사함 받지 못하고는 불가능했던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이 땅의 삶에 대해 혼이 알게 되는 것

B.D. No. 8243

1962년 8월 17일

**너**희가 나에게 질문을 할 때 나는 너희에게 답변하며 가르쳐서 너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모든 분명하지 못한 것을 해결해줄 것이다. 인간으로 이 땅에 삶을 사는 것은 인간 안에 육신을 입은 혼이 창조되었던 원래의 영이 전에 타락함으로 혼이 되어 그가 나로부터 원래 영으로 창조되었을 당시에 자유로웠던 것처럼 자유를 가지고 어려운 의지의 시험을 거치는 것이다.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양측에서 그를 얻기 위해 싸우기 때문이다.

그 자신만이 이 싸움의 결과를 결정한다. 그에게는 항상 그의 자유의지를 건드릴 수 없는 영적인 보호자가 그와 함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대적하는 세력들도 그를 다시 타락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유혹들을 이기고 길을 일치 않고 자신의 의지를 나에게 드림으로 대적할 능력을 받고 의지의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원래의 영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때에는 전적으로 지식이 없다. 왜냐하면 그가 전에 내 사랑의 빛을 거절함으로 타락하여 자신의 빛과 자신의 지식과 그의 깨달음을 잃어버려서 그는 배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배우는 일은 외적으로 또는 내가 그 안에 넣어 준 영의 불씨를 통해 내적으로 일어난다.

영의 불씨는 쉬지 않고 내부로부터 선을 행하게 자극하며 그리고 그에게 내적인 빛을 전한다. 여기에다가 나는 그 사람의 환경을 인도해 이 가운데 그가 배울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항상 또다시 영적인 보호자가 그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올바른 방향을 향하게 하고 자신을 나에게 향하게 하게 그의 의지를 정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이 그 안에서 특별하게 역사를 할 수 있다.

원래의 영이 마지막 시험으로 인간이 되어 의지의 시험을 보려는 의지를 표명하면, 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그러나 의무상태가운데 창조물들의 과정을 거친 원래 영인 혼에게 마지막 과정인 육신을 입는 것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원래의 영에게 속한 모든 입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의무단계는 종료가 되고 이 순간부터 이 원래의 영은 자유롭게 되어 내 편에서 또는 내 대적자의 편에서 어떤 강제 아래 있지 않게 된다. 그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나를 대적하는 반발심은 그가 깊은 곳으로부터 성장해 오는 동안에 많이 줄어들어서 그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는 과정을 갈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은혜의 선물을 그는 자유의지로 영접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이 땅의 운명을 보여준다. 원래의 영은 내 허용 아래서 자기가 아직 영광 가운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 본향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본향을 사모한다.

그는 단지 인간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자신이 잃었던 본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다시 한 형체 안에 거해야만 함을 알게 된다. 이런 지식이 그로 하여금 다시 인간으로 가는 과정을 늦추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혼은 자원해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것을 영접한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강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그는 자신 스스로 이 결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이 땅에 삶을 보여주게 된다. 스스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보는 가운데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형체 안에 들어가는 길을 자원해 간다. 그러나 나는 모든 각각의 원래의 영의 성장 정도를 안다. 나는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림자처럼 그 앞에 지나가게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꿈과 같은 과정이 각각의 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고 이에 합당하게 인간의 형체 안에 넣어주는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원래의 영이 형체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된다.

너의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내가 전적으로 눈이 먼 영에게 당분간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빛의 불씨를 넣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가 그의 모든 입자들이 다시 하나가 된 후에 당분간만이라도 다시 그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게 의지를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나에게서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것과 그럴지라도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면 역사 함을 너희는 알아야만 하고 믿어야만 한다.

원래의 영이 인간의 형체를 입으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면 그는 묶인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어 이제 인간으로서 이 땅의 과정을 갈 것 인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육신으로서 인간의 신체는 원래의 영인 혼이 그 안에 들어 갔을 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제 인간은 먼저 보호하는 영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다. 그는 서서히 지식을 얻게 되고 그가 자유의지로 자신의 이성을 활용해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까지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성숙해야만 한다.

이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성장 과정으로 이 과정이 원래의 영에게 남김 없이 자유를 줄 수 있다. 만약에 그가 스스로 이를 추구하며 자신 안에서 오는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의 불씨에서 나오는 내 말인 내적인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면 남김 없는 자유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 대적자는 나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 권리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위로부터 또는 아래로부터 오는 영향력 가운데 놓여있다. 누가 자신을 다스리게 할지는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그의 마지막 의지에 시험이다. 그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인 나를 추구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줄 수 없다. 그럴지라도 그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움이 주어진다.

왜냐면 나도 그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리며 만약에 그가 손을 잡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인도하게 허용하면, 진실로 선한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잡고 인도하듯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모든 피조물이 복되게 되길 원한다. 나는 진실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생각했다.

하나님이 정한 삶의 길. 자유의지. 행동과 결과.

B.D. No. 2441

1942년 8월 8일

**비**록 사람이 분명하게 볼 수 없지만, 이 땅의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작은 일도 그의 목적이 있고, 우연한 일은 없고, 단지 하나님의 섭리이다. 왜냐면 모든 사람의 삶의 행로가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행로는 항상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예견한, 사람들의 뜻과 일치한다.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알아야 할 정도로, 이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그러나 자주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예정한대로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향한 모든 책임에서 해방되었다고 믿는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런 가르침이다.

육신을 입는 은혜가 또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준다. 인간은 이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산다. 그러나 그에게 또한 자신의 의지를 시험해볼 기회를 줘야만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선한 것을, 또는 악한 것을 선택할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단지 자신의 혼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는 완전히 자유롭다. 반면에 인간의 의지는 아직 어느 정도 이 땅의 일에 묶여 있고, 그가 실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 땅의 일을 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자극할 수는 있고, 그의 결과는 절대로 유일하게 그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의지 표현의 효과를 가장 지혜로운 계획에 따라, 인간의 의지가 다시 혼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 혼의 형성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항상 또 다시 인도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거나 또는 수행될 수 있게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허용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의지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일을 허용한다. 그러나 그 일이 수행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것처럼 성공하게 될지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어난다. 인간에게 어떤 삶의 길이 주어지든, 이는 인간의 혼이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성숙하게 될 가능성을 제공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행하기 원하면, 비록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이 일이 성사되지 못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뜻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아는 인간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정한대로 모든 일이 그에게 일어난다. 하나님은 또한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의지를 인간의 이 땅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인간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역사하게 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의 악의가 일으키는 모든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아멘

자유의지에 합당하게 운명이 정해진다.

B.D. No. 7051

1958년 2월 28일

**비**록 그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정하는 것처럼 또는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믿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정해진 길을 가야 한다. 왜냐면 그의 의지를 내가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19/61

내 구원계획에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어나는 일이 마치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형성하는 것처럼 믿게 만드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주 의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절대로 의지와 다르게 원하게 강요하지 않는 의지의 자유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 이런 의지를 영원으로부터 안다. 그러므로 그의 의지에 합당하게 그의 의지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그의 삶의 여정을 만들어 가는 일이 나에게 쉽게 가능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 가운데 아주 서로 다른 삶의 형편 가운데 그의 혼의 성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왜냐면 인생의 모든 일이 혼이 이를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나와 연결을 구하고 찾을 수 있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일이 이 땅의 사람의 마지막 목표이다.

이제 사람이 세상적으로 자주 어려움들을 극복해야만 하는 일은 그가 자주 이 땅의 어려운 운명을 말할 수 있는 일은 항상 그가 나와 이런 연결을 이루게 돕기 위한 이유에서 내가 실제 무엇이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지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이 이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을지라도 그는 내 영원한 구원계획을 무너뜨리거나 그의 운명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 왜냐면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가 이 땅의 삶에서 하는 일이 성공하거나 자신의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는 절대로 자신의 이 땅의 삶을 다스릴 수 없다. 그는 개입하는 자주 계획을 무산시키는 강한 권세를 인정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운명적인 일 아래 놓여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실제 자신의 세상 지혜로 자신을 다른 형편으로 가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음을 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지해도 최선의 세상적인 조건도 자신의 계획이 남김 없이 성공한다는 또는 그가 이미 도달한 것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음을 안다.

그러나 나는 또 다시 이런 노력도 내가 미리 보았다는 것을 이 노력이 성공하려면 내 동의를 얻어야만 함을 강조한다. 왜냐면 사람의 혼을 위해 이런 노력에 열매가 없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단지 그를 막거나 또는 그에게 자신의 축복을 줄 수 있는 높은 권세를 인정하면, 혼을 얻은 것이고 이에 합당하게 그에게 세상 성공이나 또는 실패가 주어진다.

비록 그의 삶이 운명적으로 이뤄질 지라도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그의 삶에서 인도받거나 또는 방해 받을지라도 사람의 의지는 자유는 보장 된다. 그러나 전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이 땅의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형성시킬 수 있다고 여긴다. 믿는 사람이 단지 모든 일에 내 인도와 내 뜻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삶의 형편 속에 자신의 혼을 위한 유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의지가 일해야만 함을 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과정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할 필요 없다. 왜냐면 이 과정은 진실로 항상 너희 혼이 유익을 얻기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 항상 나와 연결을 이루려고 하면서 너희가 좋은 때이건 나쁜 때이건 나 자신에게 속해 있으면서 이를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삶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든지 간에 너희의 삶은 성공했다. 왜냐면 나와 연합은 자유롭고 자유롭게 남게 될 너희 의지가 스스로 이뤄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내 피조물이고 그러므로 신적인 근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는가?

하나님이 보낸 일. 하나님의 허용. 사탄의 역사.

B.D. No. 1366

1940년 4월 1일

**사**람은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너무 적게 주의를 기울인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지혜로운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세계 질서를 따라 일어난다는, 다시 말해 비록 사람의 의지는 자주 직접적인 원인일지라도, 모든 일은 일어나야만 하는 대로 일어난다는 확신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낸 일과 인간의 의지 자체가 초래한 하나님의 허용을 구별해야만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이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만드는 일은 아주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다시 제한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틀림없이 악의 역사이거나 영향인 그런 조치들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 어떤 측면에서 인간의 혼에게 성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형돼야만 한다. 이런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틀림없이 악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곤경과 비참함에 빠뜨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즉 고통과 비참함의 주범들을 무자비하게 멸절시키거나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만든다면, 사람들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박탈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단지 선이 관철되는 반면에 모든 악은 즉시 멸망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한 세력이 역사하게 하고, 항상 단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불행을 막아 줌으로, 그들이 악의 세력에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그러므로 악의 세력이 쉬지 않고 역사할지라도, 항상 이런 역사의 결과는 약화될 것이고, 사람이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충분히 저항하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사람은 항상 이런 역사로부터 혼을 위한 자신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으로 대항하지 않는다면, 대적자의 유혹이 진실로 아주 클 것이고, 인간은 이런 유혹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아주 쉽게 패배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에 의해 허용이 된 일이다. 이로써 대적자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고, 사람은 이런 역사를 혐오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외부의 위협이 더 위험하게 이 땅의 자녀에게 다가올수록 자녀는 더 빠르게 은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힘든 일조차도 영적인 의미에서 혼에 유익을 준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사건이 그에게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고, 이로써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연합 속에 머무르는 사람이 단지 진정으로 이 땅의 삶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의 사역은 의도한대로 항상 자신을 나타낼 수 없고, 주 하나님이 방해하는 개입을 하여, 그의 역사를 피

하게 해주거나, 약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런 악한 세력들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이 땅과 우주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악의 파괴하려는 충동이 엄청나게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악의 세력은 아무런 권세가 없다.

그렇지라도 주님은 인류가 완전한 쇠퇴를 보여주는 정도에 따라 악의 세력의 역사를 허용한다. 사람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사람 안에 단지 하나님의 영의 불씨 하나라도 잠을 자고 있다면, 그는 사탄의 역사를 혐오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저질의 행위조차도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들 수 있고, 악의 추잡함을 깨닫는 가운데 그런 악한 권세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간청하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그러면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일으킨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마귀의 권세가 고안한 사건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허용을 받은 것이다.

아멘

악을 허용하는 일. “모든 악에서 구해주시옵소서.”

B.D. No. 1925

1941년 5월 19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 땅에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어나는 일에 기초가 되어야만 한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그일을 막는다면,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원한다고 주장하는 일은 잘못이다.

하나님의 승인을 전혀 얻지 못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방해를 하지 않는다. 이로써 사람이 자유롭게 성장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단지 이런 의지의 자유 안에서만 육신을 입는 마지막 단계를 통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지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든 악행이 행해지기 전에 예방이 된다면,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상에는 단지 선한 일만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사람들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은 단지 희귀하게 그의 뜻에 따라 행하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 사람이 투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주의한 행위로부터 보호해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이 땅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에게 모든 의지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하나님의 허용하는 일을 넘어서는 일로 여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뜻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은 하나님이 제한을 가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에 더 많이 달려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수행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효과적인 일이 될 필요는 없다. 악한 행위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고, 악한 행위를 당하는 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에 달려 있다.

사람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 노력할수록, 악한 인간의 의지가 이웃 사람에게 의도한 모든 행동이 더욱 비효율적이게 된다. 따라서 전혀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 그러나 자신의 혼의 구원이 중요한 사람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들의 성숙한 상태에 합당하게 모든 일의 효과를 바꿀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에 가서는 양육의 수단으로, 악한 의지에서 나온 일도 양육을 받으려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 왜냐하면 영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영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께 성취를 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에게 보내진 것에 순복한다. 그러나 이웃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의 악한 의지에 대한 변명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적자의 세력이 인간의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악한 행동을 하도록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대적자의 세력을 막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 자신이 의지가 인도하는 일을 행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자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의 아주 폭력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호한다. 하나님은 악행을 방해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장 완전한 자유를 준다.

그렇지라도 사람은 절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지 않는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 사람 자신의 의지가 이런 역사를 줄어줄게 하거나, 전적으로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유일하게 그분의 뜻만으로도 그가 모든 악을 피할 수 있고, 그분은 또한 그가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그분은 또한 그렇게 행한다.

아멘

대적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다.

B.D. No. 8691

1963년 12월 3일

**시**제로 나 자신이 하늘과 땅의 지배자이다. 어떤 존재도 내 의지에 거역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내 대적자의 나라인 그의 영역에 관한 그의 권한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영역은 아직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땅의 세상이다. 만약에 성장 과정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인간의 단계에 도달했으면 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모든 방식으로 그의 성장을 막기 위해 그들이 끝 없이 긴 성장 과정을 통해 벗어난 깊은 곳으로 다시 떨어지게 그들을 압박한다. 그래서 대적자는 자신의 세상의 지배자이다. 여기에 너희 인간들이 왜 내가 수많은 불행한 일들을 허용하는지에 관한 왜 내가 드러나게 내 대적자의 역사를 인식할 수 있는 곳에서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는지에 관한 해명을 받을 수 있다.

한때 너희가 그에게 자유의지로 깊은 곳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는 너희 인간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는 너희를 자신의 권세 아래 두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활용한다. 그러나 너희 자신은 이에 저항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단지 능력을 나에게 요구하면, 너희에게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을 하는데 나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 땅의 세상은 그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고 단지 물질 안으로 묶여져서 일정기간 동안 그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모든 물질도 그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제 이 영적인 것이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가게 되면, 그는 다시 나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인간에게 그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는 진실로 이 권세를 활용을 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강력한 대적자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혼의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할 수 있다. 왜냐면 예수는 그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자신에게 자유롭게 만들어 주기를 부탁하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예수와 예수의 구속사역을 믿는 것을 증명하고 이로써 나 자신이 모든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구속하기 위해 인간 예수 안에 인간이 된 것을 인정하는 모든 혼들을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로써 비록 이 땅에 대한 대적자의 권세가 실제로 아주 클지라도 그는 자신의 선생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 비록 그가 아직 사람들에게 대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권세로부터 구할 구세주와 구속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인 내가 내 대적자의 역사를 막는 것을 그리고 해로운 역사를 실행하지 못하게 금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면 내가 사람들을 자신을 위해 묶어 두기 위해 사람들에게 모든 방식으로 역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그로부터 뺏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자신이 이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그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가 자신을 가두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그가 이길 수 없는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의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자주 너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를 허용하는가?" 나는 내 대적자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 자신이 한때 그에게 지배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 자신이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치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구하지 않으면 오늘도 너희의 지배자이다. 게다가 나는 무엇이 너희와 모든 각각의 혼에게 최선이 되는지를 안다. 나는 모든 개개인의 혼에 상태를 안다. 나는 무엇을 통해 혼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안다. 어두움의 세계도 나를 섬겨야만 한다. 왜냐면 어두움의 세력이 행하는 것을 나는 그의 결과를 인도해 단지 그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하며 나를 추구하는 인간의 혼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항상 인간의 의지 자신이 결정을 할 것이다. 왜냐면 의지는 자유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것이 창조물 안에 묶여 있는 동안에는 내 대적자가 이런 상태의 영적인 것에게 역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상태에서는 그에게 권한이 있다. 왜냐면 대적자가 자신을 위해 얻기를 원하는 것은 존재의 자유로운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기회를 활용한다. 사람은 그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그가 나와 연결을 적게 시키는 한 그는 대적자에게 더욱 더 속한다.

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위험 가운데 그에게 도피하지 않는 한 그는 대적자의 권세에 넘겨 지게 된다. 그럴지라도 그의 자유의지 스스로 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나는

실제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 대적자가 행하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를 위할지 또는 대적자를 위할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해야만 하는 이 땅의 과정을 가는 것이 인간에게 쓸모가 없다. 너희에게 어려운 시험이 주어지는 것 그리고 왜 주어지는 지를 너희 사람들에게 자주 가장 큰 위험에 주어지는지 그리고 왜 주어지는 지를 그리고 내가 왜 이를 막지 않는지를 너희 사람들은 이해해야 한다.

왜냐면 너의 자신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찾게 하기 위해 내가 허용하는 모든 위험들의 실제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추구하고 신뢰하며 나에게 도피하고 나를 이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너희가 나에게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고 너희를 잃지 않기 위해 싸우는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고 언제든지 도울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진실로 내 권세는 더 크다. 너희가 영으로 진리 안에서 나를 부르면, 나는 너희를 그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은 헛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 하느님께서서는 왜 고난을 허용하는가?

사랑과 고난은 정화를 위한 수단이다.

B.D. No. 3152

1944년 6월 7일

**혼**은 죽음 후에 빛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이나 저세상에서 정화돼야만 한다. 혼은 모든 불결한 요소를 버려야만 하고, 한때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왔을 때처럼 더 맑고 더 순수해져야만 한다. 이로써 혼이 오염된 혼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어 한다. 이런 정화되는 일이 사랑이나 고통을 통해 이 땅에서 이뤄진다. 혼을 정화하는 일에 사랑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고, 고난은 비자발적 수단이다. 이 두가지가 혼이 육신의 죽음 후에 도달하는 빛의 정도를 정한다.

사랑과 고난이 함께 빛의 정도를 높인다. 왜냐면 사랑을 행하는 혼이 모든 불순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혼은 고난과 환난을 견뎌야만 하기 때문이다. 혼은 영원한 신성과 연합하기 위해 혼이 되어야할 상태가 될 것이다. 사랑을 행하는 혼은 영원한 신성에 합당하게 자신을 형성할 것이다. 사랑하는 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형성하다. 왜냐면 사랑은 그 안에 일치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은 선하고 고귀한 생각과 말과 행함이 나타나게 한다. 아직 순수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입김이 있고, 명확성이 부족한 곳에서 고통이 혼을 도와 변화시켜, 하나님의 빛이 방해받지 않고 혼에게 빛을 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견디도록 고난이 주어진다. 하지만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는 더 이상 고난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떤 혼도 더 이상 고통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빛이 되었고, 선명한 혼이 된 높은 성숙한 정도에 있지 않다. 왜냐면 고난이 더 이상 그를 개종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먼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의 혼을 결정화시켜, 혼이 선명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고, 영의 나라에서 혼에게 임하는 모든 빛의 광선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사람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또한 유혹이 그에게 다가오고, 혼이 완강하게 유혹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모든 유혹은 혼을 흐리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 고난을 통해 그런 유혹을 무해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사람이 포기하는 일을 더 쉽게 행하거나, 더 심한 고통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극복하면서, 고난이 대부분 초래하는 일에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게 돼야만 한다.

그는 자신과 싸워야만 하고, 자주 세상과 세상의 매력에 싫증을 낼 것이다. 그의 혼은 서서히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된다. 혼은 단지 사랑을 행하는 일만 수행하고, 고난에 대해 감사하게 된다. 왜냐면 혼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도피하고, 이제 자신에게 깊이 임하는 하나님의 힘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의 힘이 모든 불결한 것을 쫓아내고,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성숙의 정도로 혼이 성장하게 한다. 이런

일은 정화의 과정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안전하게 목표로 이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고난이 단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접촉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과 모든 접촉은 힘의 공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힘의 공급은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계속되는 정화의 수단이고, 스스로 사랑을 행함을 통해 동시에 정화의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분해 시키고, 모든 것을 정화하고, 모든 것을 비취주고, 고통과 함께 혼을 영화 시키고, 혼을 빛의 운반자로 만들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혼이 이제 모든 불순물이 없게 되고, 높은 성장정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런 높은 성장 정도가 저세상의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보장한다.

아멘

고난의 원인과 목적과 목표. 깨달음. 허무함.

B.D. No. 3610

1945년 11월 22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진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그들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연결을 통해 어떠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단지 세상적인 일에만 주의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임을 깨닫지 못한다. 사람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부족한 동안에는, 그들의 고통이 충만한 상태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고난은 단지 항상 다른 형태를 다시 취할 것이다. 이로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언젠가 인간의 권세와는 다른 권세가 이러한 모든 환란 뒤에 있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하고, 단지 사람의 의지가 원인이 아니고, 더 높은 권세가 동시에 역사한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하고, 그들이 이런 높은 권세에 대한 어떠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게 한다.

순수한 진리를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큰 위험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원인과 목적과 목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목적과 목표에 합당하게 자신을 맞춰 나가면,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비로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세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최우선에 두는 동안에는, 그들이 육체에 모든 우선권을 주고, 혼을 굶주리게 한다면,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게 머물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지식은 단지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진리를 아는 지식이 전해진다면, 그는 이런 지식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더 많은 고난을 통해 그가 세상 재물의 가치가 없음을 깨닫고, 세상 재물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게 되어, 진리를 영접하기 원하는 상태에 처해야만 한다. 이에 합당하게 진리를 향한 갈망이 증가될 것이다. 증가되기 위한 선행조건은 그가 그의 생각을 전적으로 혼돈케 하고, 진리를 떠나게 하려고 시도하고, 세상이 세상의 기쁨으로 그를 더 많이 실망시킬수록, 그 안에 미움을 불타오르게 하는 악한 세력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든 수단은 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지라도 그들이 이 땅에서 세상 가치가 헛된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이 세상 가치를 경시하는 법을 배우고, 더 이상 지나치게 자신을 세상에 묶이게 하지 않는다면, 이로써 혼이 이 땅을 떠날 때, 비록 혼이 아주 낮은 성장 정도로 저 세상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람의 혼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저 세상에서 물질을 극복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고, 높은 곳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저 세상에서 이뤄진다면,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혼은 영의 나라에서 그에게 제공이 되는 진리를 더 잘 영접하고, 더 이상 이 땅에서처럼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혼이 이 땅의 큰 고난을 통해 세상의 물질이 헛된 것을 깨닫는다면, 겉으로 보기에 혼이 위험한 때의 희생자가 되어, 그의 이 땅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난 혼의 운명에게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악한 의지가 원인이 된, 고난과 고통도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혼들을 위해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구원계획에 합당한 범위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중단할 때까지 자유의지로 서로 간에 분노하는 일을 허용한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진리에 그들의 귀를 닫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행동을 통해 성장하게 하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길을 가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이런 길을 원했고, 그들 자신이 이런 고난의 원인의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아멘

고통스러운 운명적인 일을 당하는 이유.

B.D. No. 7928

1961년 6월 26일

**나**는 종말 전에 너희가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너희에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비록 고통스러운 방식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나를 계시해 줄 것이다. 너희는 항상 너희 스스로 너희의 운명을 정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는 항상 너희의 삶에 간섭을 하는 너희가 눈먼 봉사처럼 추구하는 멸망으로부터 너희를 구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간섭하는 한 권세를 인정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 내 모든 경고와 권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한 동안 엄하게 대하고 고통을 줘야만 한다. 나는 너희가 이 땅에서 소유하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너희로부터 빼앗아 만한다. 나는 너희에게 죽음과 질병이 임하게 해야만 한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인 나를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너희에게 생명을 부여한 권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종류의 운명적인 일을 당해야만 한다. 사람들이 서로 떨어지게 하는 일이 죽는 일들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람들이 일찍이 생명을 잃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나는 공개적으로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단지 자원하는 사람이 나를 깨닫고 그가 이제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고 이로써 더 이상 버림받지 않을 수 있다. 종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내 사랑과 지혜와 권세가 자주 개입을 해야만 한다.

항상 또 다시 새롭게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것의 허무함을 가르쳐야만 한다. 그들이 얼마나 허무한 목표를 추구하는지 그러므로 그들이 자주 육체적으로 혼적으로 고통을 당해야만 하

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나에게 의뢰하고 그들의 위험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야만 한다.

이웃들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그들이 이 땅의 삶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인식에 도달해야 한다. 모든 운명적인 일은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마음에 그려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모든 운명적인 일이 사람들이 나에게 향하게 하고 사람들이 내 볼 수 있는 도움을 통해 나를 깨달을 수 있으면, 모든 운명적인 일은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로서 내 말을 직접 받는 너희는 너희 이웃에게 내가 한 동안 가혹하게 사랑이 없어 보이게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

너희는 그들에게 내가 나를 위해 사람들을 얻기 위해 모든 시도를 함을 내가 항상 또 다시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운명적인 일은 나를 나타내는 항상 단지 너희의 생각이 나에게 향하게 하기 위한 목표를 추구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시간이 단지 얼마 없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너희 혼의 구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세상적인 것을 저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 너희는 항상 단지 죽은 재물들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세상의 물질이 헛된 것에 관해 주의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모든 종류의 사고들과 자연재해를 들을 것이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일로 슬퍼할 것이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는지 질문할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너희를 얻기를 원한다.

그는 너희가 축복 되길 원한다. 그러므로 그는 너희의 생각이 그에게 향하길 원한다. 너희가 가혹하게 당하는 모든 일의 이유는 내 사랑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파멸을 받기 때문이다. 단지 이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너희에게 계시하고 만약에 너희가 내 사랑이 충만한 경고와 권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가혹하고 고통스럽게 너희에게 개입한다.

왜냐면 나는 너희가 파문을 받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종말 전에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종말 전에 나를 찾지 못하면, 이 땅의 창조물 안으로 파문을 받는 피할 수 없는 더욱 불행한 운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길 원한다.

아멘

기형아 탄생의 원인.

B.D. No. 8273

1962년 9월 15일

**자**신을 나에게 헌신하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혼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부탁을 나는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알기를 갈망하는 것을 너희는 알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영의 학교를 마쳐야 한다. 창조의 작품인 이 땅을 영의 학교로써 내가 정한 이 영의 학교 안에서 모든 사람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이 학교는 성

장의 모든 단계에 맞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때 타락했던 원래의 영인 혼들은 의무단계 아래서 그들의 성장 과정 동안 아주 다르게 성숙하여 그들 모두는 서로 다른 삶의 환경이 필요하다. 그들은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수 있기 위해 어느 성장 정도에 도달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육신을 입는 단계 가까이 올수록 걸형체의 묶임은 느슨해진다. 형체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입자들은 이런 느슨해진 상태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러나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합당하게 이제 혼이 인간의 과정에 들어설 때 서로 다르게 되었다.

이런 서로 다른 혼의 상태는 형체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성공을 줄 수 있는 서로 다른 이 땅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아주 죄가 많은 혼도 자유의지로 특별히 어려운 이 땅의 삶을 택하면, 이런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 혼이 육신을 입기 전에 그에게 이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길을 갈지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런지 너희가 질문하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아주 극심이 어려운 이 땅의 과정을 스스로 갈 필요가 없을 지라도 자유의지로 이웃에게 사랑과 인내와 긍휼과 온유와 화평과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저세상에서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없는 스스로 죄짐을 가진 다른 혼들을 돕기 위해 나에게 부탁해 가는 혼들도 있다. 이런 혼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성장 정도를 높인다. 그러나 이 혼들은 저세상에서 이미 어느 정도 성장 정도에 도달해 이 땅에서 새롭게 육신을 입는 일을 허락받는다. 왜냐면 그들이 부탁하는 이유가 사랑을 하려는 도우려는 강한 의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한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면 성숙하지 못한 혼들에게는 그들의 성장 정도를 높이기 위해 다시 한번 육신을 입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떤 혼도 이 땅의 과정을 가게 강요받지 않고 혼에게 미리 보여준 운명을 자유의지로 짊어진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 된 관점이다.

왜냐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왜냐면 그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혼이 자유의지로 사명 때문에 또는 돕기 위해 이 땅의 육신을 다시 입을 수 있기 전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가 이뤄졌어야만 한다. 왜냐면 빛에 도달한 혼은 특별히 종말의 때에 이 땅의 사람들의 사랑이 없는 상태를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 살면, 사람들이 자신 안에 사랑을 일깨우게 하는데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는데 그들의 모든 덕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려는 자세를 이런 혼은 스스로 가지고 있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이 땅에 다시 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성숙하지 못한 혼이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다시 이루게 이 땅에 다시 임하게 허락하지 않는다. 단지 자유의지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만 나로 하여금 허락하게 만든다. 그러나 항상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그 혼 자신의 구속이 먼저 이뤄졌어야만 한다. 이런 혼에게 이 땅에서 높은 성장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면 모든 자유의지로 드리는 희생은 내가 인정하고 축복하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가 질병의 축복에 대해 알면, 너희가 질병이 혼이 정화되는 것을 돕는다는 것을 알면, 질병이 너희가 인내하고 내 의지에 복종하게 도와 너희가 내 의지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게 됨을 알면. 너희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깨달아 임하게 한 것으로 영접하면, 너희는 내가 건강하게 해주는 시점을 깨달음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갑작스럽게 건강하게 해주는 일을 너희의 자유의지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나를 그리고 내 권세를 믿게 강요 받기 때문이다. 너희는 강요받지 않고 이런 믿음에 도달해야 한다. 너희는 모든 사람의 이 땅에 삶의 목적이 사랑 안에서 섬기는데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섬기는 이 땅의 과제를 성취시키려면, 항상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이 그들의 질병의 원인과 치료하기 위한 올바른 수단을 깨닫게 함으로써 축복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도우려고 하는 자세 따라 연약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에 따라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모든 치료는 내 의지에 달려있다. 이 의지가 만약에 오랜 투병 생활의 결과가 혼에게 귀한 것으로 깨달으면, 한 사람들이 수고하는 일에 경계를 정한다. 사람의 삶의 운명을 정하는 것은 내 의지이다. 이 운명에 사용하는 모든 수단 중에 인간적인 의지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질병이 속해 있다. 나는 절대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수단을 발명해 내려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사랑으로 도우려는 의지가 모든 연구활동의 원인이 되는 한 내 축복이 그 위에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수단을 만들려는 동기가 세상적인 물질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대부분 이런 수단은 효과가 없고 겉으로 보기에 나아지는 것 같지만 인간의 육체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장 해를 끼치지 않는 수단이 치료하기 위해 충분 할 수 있다.

왜냐면 이 것이 내 의지이기 때문이다. 내가 치료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질병은 무엇보다도 나와 의 연합을 도와야 한다. 사람들은 나를 도피처로 삼아야 한다. 나 자신에게 치료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 생각으로 또는 내 의지에 따르는 사랑의 삶으로 나와 연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의 생각을 인도해 줄, 너희에게 자신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병 고치는 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축복 되지 않은 작업으로 만들어진 수단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면 육체에 게나 혼에 게나 회복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혼을 돕기 위해 인간의 의지의 반대로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체가 더 이상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배우게한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의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완치되는 것은 나 자신이 정한다.

나는 자주 그들의 노력들을 축복해 너희가 건강하게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너희 혼에게 유익한 것을 얻어야 한다. 이는 너희가 나와 내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다. 너희가 인내하며 고통을 견디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질병 가운데 너희를 입증하면,

너희 혼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 땅의 거할 때 "너의 믿음이 너를 도왔다. "하며 사람들을 치료해 준 것처럼 너희는 바위와 같은 굳은 믿음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의 사랑이 아주 깊어서 너희가 생명력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너희는 내 사랑과 권세에 대해 단 1 초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순간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치료가 바위 같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에게는 믿음의 강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누가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의심하지 않고 내 능력을 사용하고 자신을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하며 나에게 전적으로 모두 헌신하고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진실로 너희 자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이웃을 위해 강한 믿음으로 기도를 했던 이웃이든지 이들에게 모든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나와 전적으로 깊이 연합이 되어있는 사람은 이미 전적으로 내 의지 아래 있다. 그는 나 자신이 역사하게 허용하고 자신의 의지로 미리 개입하지 않는다.

그는 가장 힘든 고난도 복종하며 내 의지 안에서 견딘다. 이로써 자신의 혼에게 육체의 건강을 통해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에게 너희의 운명이 견딜만 하게 역사할 것이다. 만약에 한 사람이 큰 고통을 통과하는 길을 가야 하면, 단지 내 사랑이 그의 혼에게 표현이 된 것이다. 혼은 언젠가 영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미 많은 찌꺼기를 버릴 수 있게 해준 이 땅에서 죄짐을 상쇄할 수 있게 해준 건강한 육체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아주 적은 짐을 가지고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 내 사랑에 감사할 것이다.

아멘

심한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을 수 있게 한다.

B.D. No. 8980

1965년 5월 23일

**너**희는 사랑으로 나에게 헌신하고 또한 혼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기 위해 이로써 너희가 영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내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고난을 순종하며 견딘다면, 너희가 단지 하느님의 자녀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이미 자주 말해주었다. 왜냐하면 인간의 혼이 이 땅에서 견뎌야만 하는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이 모든 걸형체를 해체시키기 때문이다. 내 사랑의 빛이 이제 모든 충만함으로 혼에게 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혼이 모든 저항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놀라지 말라. 모든 고난을 능가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고 인내하며 견디라. 왜냐하면 상급이 아주 크고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때가 혼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영원한 기간 동안의 영광스러운 운명에 비하면 아주 짧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통이 많은 삶을 자원하여 살아야 하고 내 큰 사랑이 영원 전부터 내가 정한 목표에 너희가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이런 이 땅의 삶을 부과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의 이 땅의 삶 뒤에 오는 삶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이 운명은 영광스러운 운명이고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부여받은 내 자녀에게만 부여되는 운명이고 자녀가 가장 높은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자녀들에게도 나는 헤아릴 수 없게 머문다. 즉 그들의 나를 향한 추구는 끊임 없이 계속되고 그들은 나를 갈망하고 그들의 갈망은 항상 성취 된다. 그들의 나를 향한 갈망이 멈추지 않게 되고 그들이 결코 완전히 만족할 수 없게 되는 일이 그들의 축복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을 감당해야만 하고 너희는 몇 번이고 시험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견뎌야만 하고 항상 단지 나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큰 사랑이 너희의 고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너희가 너희의 고난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사랑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고난을 받도록 허용받는다면, 너희는 감사해야 한다. 왜냐면 고난이 너희의 온전하게 되도록 단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다음 말을 헛되게 말하지 않았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냐면 단지 가장 힘든 고통을 겪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는 사랑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고 너희가 즉시 고난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왜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하는지 묻지 말라. 오히려 고난이 주는 성공을 생각하라. 혼에게 전적으로 사랑의 빛을 발산해주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분순물을 제거하려는 생각하라. 그리고 고난이 항상 일시적인 상태일 뿐이며 그 다음에는 영원한 행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이런 행복을 위해 너희의 육체적 힘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더 많은 고통을 참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하게 고난을 겪어야 하는 너희는 내가 너희를 그런 상태에 두도록 결정한 것은 자녀를 향한 그리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언젠가 너희 자신이 이 땅의 삶에서 너희에게 영향을 미친 모든 역경에 대해 나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또한 항상 나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죽음 후에도 계속되는 삶을 믿는 믿음과 끝이 없는 내 사랑을 믿음과 이로써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이 땅의 과정을 가게 하는 길 외에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한때 타락한 존재의 귀환을 위한 일로 여기는 일을 전제로 한다.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너희는 또한 모든 고난을 인내하는 가운데 견디고 너희는 항상 고난 가운데 단지 한가지 목적을 보고 너희가 인간으로서 바꿀 수 없는 모든 일을 너희를 가장 높은 목표로 인도하기 위해 내 사랑과 내 지혜가 너희에게 부과한 것으로 순종하며 감당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목표에 도달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전혀 빛이 없이 저세상의 나라로 가게 되지 않으면, 그는 행복하게 될 수 있다. 왜냐면 그들이 저세상에서 그들의 빛의 정도를 높일 수 있고 그들이 항상 더 높게 성장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땅의 과정을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은 최고의 성숙함에 도달하기 위해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로서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이제 원래 초기부터 아버지의 목표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나

모든 자유 안에서 영원히 아버지 편에서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기 위해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멘

## 하나님은 왜 자연재해와 불행과 파괴하는 일을 허용하는가?

일찌기 파괴하는 일과 그의 결과.

B.D. No. 2313

1942년 4월 25일

 든 물질 안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인 성숙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물질 안에서 존재하도록 정해져 있고, 영적인 존재가 마음대로 이 기간을 줄일 수 없다. 단지 사람의 의지만이 물질로부터 영적인 존재를 해방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마음대로 영적인 존재의 체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왜냐면 물질을 변형시키고, 항상 또 다시 영적인 존재가 거해야 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마나 오랜동안 영적인 존재가 어떤 형체 안에 머물러도 되는 지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인간이 물질의 변형을 위해 일하고, 새롭게 형체를 창조하는 목적이 섬기는 일이면, 이런 일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다.

인간의 의지가 물질을 이용해 생산하는 모든 것은 다시 인류의 유익을 위해 섬겨야만 한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의 걸형체가 존재하는 기간이 하나님의 뜻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걸형체가 인간의 의지에 의해 일찍 분해가 되고, 새롭게 생성되어야 하는 역사를 통해 섬기는 과제를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일은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고, 영적인 존재의 성장과정이 중단되거나, 영적인 존재가 이 땅의 어떤 피조물을 위해 최대도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을 하도록 강요를 받는다. 인간의 손이 영적인 존재가 섬기는 일을 통해 성장하는 일을 막는다.

동시에 인간이 거만하게 창조물을 조기에 파괴시켜, 영적인 존재가 조기에 자유롭게 되도록 돕는다. 이런 일은 영적인 삶에 아주 크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서 다음 형체 안으로 육신을 입기 위해 필요한 성숙도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고, 이런 일은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영적인 존재가 이전의 형체를 완전하게 극복할 때까지 새로운 형체 안에서 살 수 없다. 결과적으로 다가 오는 때에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의 걸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자신의 때가 되어, 이제 새로운 형체 안에서 거하게 될 때까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

(1942년 4월 25일) 사람들의 사랑없음 때문에 일어나는 물질을 조기에 파괴시키는 일로 인해 성장 과정이 중단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는 자신의 자유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한다. 아직 파괴되지 않은 부분에 남아 있는 영적인 존재는 자신의 새로운 형체를 기다린다. 그러나 물질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곳에서 영적인 존재들이 다른 머물 곳을 찾는다. 영적인 존재들은 그들의 소유하려는 욕구에 따라 먼저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항상 또 다시 생각하게 하고, 사람의 욕망을 불러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그 안에서 다시 육신을 입을 수 있도록 같은 물질을 만들려는 의지를 갖도록 자극한다.

이런 일은 사람에게 자주 고통이 큰 상태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태는 자신들의 성장과정이 중단된,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원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이런 파괴된 물질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힘을 사용한다면, 물질을 향한 인간의 모든 태도가 얼마나 결정적인 지에 따라, 영적인 존재가 그 근처에 얼마나 오래 동안 머물러, 사람을 공격할지에 따라, 영적인 존재의 공격이 중단이 된다. 물질을 향한 욕망이 클수록, 영적인 존재의 영향력이 커지고, 영적인 존재는 이런 영향력을 더 많이 인간의 욕망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인간의 활동을 통해 이런 영적인 존재를 다시 담는 것을 생성하는 일이 불가능한 곳에서 영적인 존재는 다른 창조물을 공격을 한다.

영적인 존재들은 다른 창조물들과 연결을 이루려고 하고, 다른 창조물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 이런 일은 정상적인 자연의 현상을 벗어나는 일로 나타난다. 즉 식물 세계에서 특히 분명하게 불규칙성이 나타난다.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개입을 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모든 파괴의 역사가, 고귀하지 못한 동기로 조기에 파괴하는 모든 파괴의 역사가 다시 파괴하는, 질서를 벗어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조기에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는 무력하지 않고, 자유한 상태에서, 같은 성장 정도에 있거나, 더 높은 수준의 성장 정도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게 항상 공격을 하거나 영향을 미친다. 이런 존재는 함께 활동하기를 원하는 영적인 존재와 합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유를 활용한다. 다시 말해 두개의 지능이 이제 창조물을 파괴하는 일로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한다. 이는 항상 단지 시도이다. 왜냐하면 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가 저항하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짧은 기간 동안 정상적인 상태에 간섭을 받고, 심각하지는 않을지라도, 눈에 띄는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 영적인 존재들이 이런 식으로 균형을 이루려는 일을 추구하고, 찾는 일을 허용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에 의해 창조물이 중요한 변화를 겪는 일로부터 창조물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단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모든 범죄가,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는 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일은 식물의 세계의 성장이 지연되거나, 흉년이 들거나, 날씨 영향으로 나타나고, 이런 일은 자연 가운데, 구름 속에서, 공기 중에서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가 일으키는 일이다. 창조물을 조기에 파괴하는, 이로써 식물의 세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의지가 아주 자주 그런 일의 원인이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는 활동하지 않는 상태로 머물지 않고, 비록 존재가 자신의 성장 단계에 합당한 걸형체를 찾고, 자신의 성장과정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성숙 상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새로운 변형되는 일과 새로운 활동할 영역을 찾기 때문이다.

아멘

**이** 땅 자체가 끊임없이 회전하고, 이런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 이런 자전이 또한 원래의 액체 덩어리에서 이제 모든 종류의 생명체의 거주지가 된, 굳어진 이 땅의 발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의 핵심은 아직 액체이고, 굳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생명체의 거주지로도 적합하지 않다. 이 액체 덩어리가 분출을 통해 표면으로 가는 길을 연다면, 이런 일은 이 표면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완전한 파괴에 해당하고, 그런 분출이 모든 생명체들의 완전한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이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극도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런 일을 허용한다. 다시 말해 모든 분출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허락해야 하고, 허락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땅의 내부의 세력들은 지속적으로 활동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이 이 땅을 위해, 이 땅의 표면의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땅이 완전히 굳어진다면, 모든 초목들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부에서 일하는 영적인 세력들의 활동은 확실하게 이미 영적인 존재들의 구원을 위해 섬기는 일이다. 그러므로 비록 이런 세력들이 이 땅에서 형태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까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야만 할지라도, 이런 세력들에게 언젠가 이 땅에서 그들의 성장과정을 시작할 기회를 줘야만 한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적 재앙은 가장 고도로 발달된 영의 존재인 인간에게는 이 땅의 과정의 끝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의 이 땅의 과정의 시작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로 여길 수 있다.

모든 창조물은 영적인 존재의 성장을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더 이상 더 높은 혼의 성장을 위해 추구하지 않으면, 인간이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무시하면, 하나님은 삶을 끝내고, 동시에 성장 초기에 영적인 존재에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준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역사를 통해 동시에 다시 이 땅의 과정을 가는 은혜를 받은 영적인 존재를 그 안에 담고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 멸망시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역사하는 곳에서 의미와 목적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 재물을 잃는 일이 영적 보물을 얻게 할 수 있다.

**너**희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빼앗기거나 또는 금지당하는 일에 대해, 너희가 단지 영적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너희는 풍성한 영적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영적인 요청을 헛되이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영을 향한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따라서 항상 성공하기 때문이다. 너희 인간이 물질에 더 깊이 얽혀 있을 수록 너희의 생각은 더 적게 영적인 방향을 향한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기 위해 먼저 물질을 빼앗겨야 만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물질적 재물을 포기하도록 강요를 받을 때, 이를 항상 온전하게 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빈손이 될 필요가 없고, 너희가 단지 원하면, 더 풍성하게 영적인 재물을 받을 수 있다.

너희는 실제 이 땅의 물질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의 물질이 절대로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영적 재물의 가치를 깨달을 때 희생하기가 쉽게 된다. 너희 사람들이 세상적인 곤경에 처하고 인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많은 힘을 받는 것을 느끼기 위해 영적 지원은 항상 요청해야만 하게 되었을 때, 너희가 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소유한 이 땅의 재물은 빼앗길 수 있다. 그러나 영적 재물이 너희에게 중요하다면, 너희는 절대로 영적 재물의 잃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영적인 재물을 향한 소원은 항상 성취가 된다. 그러나 세상 재물은 항상 너희 자신의 것이라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 너희가 단지 세상 재물을 잘 사용하면,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의 축복을 위해 창조하고 일하면, 세상 재물이 또한 너희를 축복하고 증가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사람들은 이미 물질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고, 더 이상 모든 감각으로 물질을 갈망하지 않고, 물질을 가지고 너희 이웃의 유익을 위해 일하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의 재물을 빼앗긴다면, 원망하지 말라. 왜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왜 그런 일을 허용하는 지를 알고, 그런 재물을 잃는 일이 너희에게 또한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종류의 은혜의 선물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그러면 너희의 의지가 단지 너희 자신과 이웃의 온전함을 위해 은혜의 선물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빼앗긴 물질적인 재물로 인해 절대로 슬퍼하지 말라. 물질은 영원을 위해 가치가 없다. 그러나 물질의 손실은 너희에게 안정된 가치를 가진 재물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런 재물은 이미 이 땅에서 그리고 언젠가 영의 나라에서 너희를 축복되게 할 수 있다. 너희가 영적으로 일하고 모은 것은 너희의 소유로 남아있고 쇠하지 않는 재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소유한 세상적인 재물을 기꺼이 주고 기쁨으로 희생하고 영적인 재물과 교환하라. 왜냐면 너희가 너희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단지 영적인 재물을 사용하게 될 때가 오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1964년 6월 11일에 쾰른에서 일어난  
불행한 살인 사건)

B.D. No. 8812  
1964년 6월 15일

**나** 자신이 너희에게 내가 왜 이런 일을 허용했는지 답변을 줄 것이다. 너희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너희들도 슬픔과 고난과 염려와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안에서 내 사랑은 깨달을 수 없다. 비록 내가 내 대적자가 준 임무를 수행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고난을 준 한 사람의 행동을 막지 않았을지라도 너희 인간들에게 내 크고 넘치는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이 땅의 삶을 지나치게 세상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너희 모두는 이 땅의 삶이 단지 너희에게 의지의 시험을 위해 준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 땅의 삶은 너희가 끝이 없이 긴 이 땅의 길을 마지막 단계로써 거쳐야만 하고 이를 마친 후에는 너희가 전적으로 물질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영의 나라로 가기 위한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 땅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너희는 단지 이 땅의 삶 자체를 목적으로 살고 있다. 특히 내 눈앞에 가치가 없는 외적인 관습을 행하면, 너희는 너희의 의지를 올바르게 활용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요구를 너희가 성취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대적자의 지시

로 행해진 일을 내가 막지 않았다. 내 대적자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허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이미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주의가 이에 향하게 될 줄을 알았다.

너희 믿음은 생명력이 있게 되어야 한다. 죽은 믿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생각이 없이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를 유일하게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 이제 너희에게 특별한 위험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너희 모두에게 너희 혼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얼마나 짧은 시간만이 남아 있는지 선명하게 해주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너희에게 너희가 한때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함을 설명해줄 수 없다.

너희가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이 현재 사는 것처럼 살면, 그리고 너희에게 믿으라고 요청하는 대로 영접할 때 그런 믿음은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한 너희가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어 너희를 위해 죄값을 치름으로 구속받을 수 있게 될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아니다. 이런 일을 통해 너희 모두를 불러야만 했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너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믿으라. 그들에게는 내 은혜는 확실하다. 왜냐면 그들은 단지 생각이 현혹된 자의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모든 인간들에게 너희에게 지금까지 진리로 소개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요구한다. 죽은 자들은 자신을 희생한 것이고 자신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였는지 질문하는 너희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내 존재를 부인하지 말라. 왜냐면 비록 너희가 나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운명을 인도하고 너의 생명의 끝나는 시점을 정하는 너희 위의 권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이 무한하다는 것을 믿으라. 내 사랑은 모두를 감싸고 어떤 내 피조물이라도 제외시키지 않고 모두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지 비록 너희에게 끔찍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혼들에게서 남김 없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목적에 도달한다. 혼들은 언젠가 영원 가운데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지나 가는 과정으로 여기는 법을 배운다면, 너희는 내 역사함과 인도함을 더 일찍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혼이 계속 사는 것을 진지하게 믿어야만 한다. 어디에서 진리 안에 있는 이런 믿음을 찾을 수 있느냐? 너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다. 너희는 항상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고 너희 혼을 돌보는 삶을 살지 않는다. 너희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것은 단지 관습과 형식이다.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나와 깊은 연결이 너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결을 가진 자는 묻지 않고 그의 운명에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에게 내가 도와주기를 위해 깊게 내적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의 기도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아 멘"

아멘

이 땅을 일찍 떠나는 일. 목적.

B.D. No. 3258

1944년 9월 16일

**사**람들이 계속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 죽게 되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비참하게 하는 일을 무기력하게 당한다면, 죽음이 항상 그들 가까이에 있게 된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난의 실제 원인과 사람들이 일찍이 죽는 일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난은 항상 더욱 고통스러운 형태가 되고, 인류는 전적으로 놀라는 가운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것이고, 그들에게 다가온 큰 불행에 경직될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와 다른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비참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이를 통해 자신의 혼을 위해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게으름을 벗어나도록 그들을 깨우기 위해 가장 극심한 수단을 사용한다. 왜냐면 사람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의 혼이 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운명적인 일들에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자세가 이 땅에 고난이 증가되는 원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바꾸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목숨을 잃게 되어야만 한다. 왜냐면 오래 사는 일이 그들의 믿음을 전적으로 잃게 하고, 단지 전적으로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혼에게 유익이 되기 보다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족한 성장정도에도 불구하고 셀 수 없이 퇴보하는 일을 막기위해, 그들이 저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을 허용한다. 왜냐면 그들에게 이 땅의 상태가 숨겨져 잊지 않고, 그들이 계속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고, 그들의 혼의 구원을 등한시 했기 때문에, 잘못된 삶 때문에, 믿음 없음과 사랑이 없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 자신에게 어려운 이 땅의 고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깨달음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일찍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들은 아직 자신을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고, 큰 고난을 통해 정화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은 그들의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사는 삶이 주지 못한, 높은 성장 정도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면 일찍이 목숨을 잃는 일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이 땅의 세상의 고난이 아주 크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혼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이 이를 깨닫는다.

큰 고난이, 그들이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린다면, 모든 위험을 물리칠 수 있고, 물리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큰 위험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전적으로 깊은 곳으로 떨어질 가장 큰 위험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을 끝마치게 하고, 비 인간적으로 보이는 불행을 허용한다. 왜냐면 그는 항상 사람의 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가운데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혼을 구하려고 시

도한다. 왜냐하면 그가 행하는 어떤 일도 잘못이 없고, 모든 일이 선하고, 사람들의 혼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죽음의 순간. 고난에 대한 설명.

B.D. No. 4033

1947년 4월 30일

**너**희는 절대로 너희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공활이 너희 죽음의 순간에 함께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비록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너희에게서 전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영원히 자유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면, 너희의 마지막이 어렵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너희의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한다. 너희 혼이 아직 변화될 수 있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너희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종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에 대한 설명을 찾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다. 왜냐하면 고난이 짧은 시간 동안에 혼이 저 세상에서 빛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성장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혼이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큰 사랑과 공활을 깨달으면, 혼은 자신의 창조주에게 감사할 것이다.

이처럼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여겨야만 한다. 죽음에 고난이 함께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끝맺음이 사람에게 축복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축복이다. 왜냐하면 혼이 실제 고통을 통해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축복된 영들의 나라로 즉시 올라가기 때문이다. 혼은 단지 육체적으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땅을 떠난다. 혼은 아직 혼을 감싸고 있는 육체의 성장한 입자를 가지고 떠난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고난의 정도가 아직 혼을 감싸고 있는 걸형체를 분해시키기 때문이다. 이 땅에 자신을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남김없이 자유롭게 만드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구속을 위해 이 땅의 삶을 활용하였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 실제 혼의 평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육체의 고통을 불의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혼이 육체가 죽고, 육체의 고통이 끝나는 것을 알고, 비록 혼이 이런 깨달음을 육체에게 더 이상 전해줄 수 없을 지라도, 육체의 고통을 통해 혼이 유익을 취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육체가 혼의 온전함을 느끼면, 육체는 혼에게 거할 장소를 제공하는 자신의 과제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혼과 분리된다. 죽음의 순간은 너희 모두에게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혼에게 더 이상 고난이 필요하지 않으면, 혼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단지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 자신의 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면, 죽음의 순간은 너희가 빛의 나라에서 깨어나기 위해 너희에게 축복된 잠이 드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죽음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공활을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고난이 아직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그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 육체가 단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혼은 전적인 기쁨으로 육체를 떠나고 빛의 영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의 도움이 필요 하기 때문에 너희의 자유의지가 선행이 될 경우에 나는 너희에게 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나는 실제로 나를 위해 그릇을 선택할 수 있고 그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내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의지 만이 정할 수 있고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의지 만이 성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를 위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행할 수 있기 위한 선행조건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주 있다. 그러므로 나는 누가 이런 일을 자유의지로 하려고 하는지 나에게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이런 그릇들을 유지할 줄을 알고 있고 모든 위험한 환경 가운데 인도하며 세상을 향한 소원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없고 그가 단지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 그의 세상적인 소원을 전적으로 뒤로 할 때 특별히 인도한다.

그러므로 포도원 농부의 일이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열린 귀를 가지고 자신 스스로 나와 연결이 되려고 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 땅의 내 종들을 통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너희의 노력은 항상 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내 나라에 많은 학교들이 있다는 것을 모든 우주 안에 한때 타락했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을 돕는 창조물들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었다. 모든 창조물들은 자신의 고유의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은 존재들이 항상 성장하게 섬기는 일이다. 존재들의 상태에 따라 창조물 안의 생활 형편이 달라 진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혼들은 나만이 알 수 있는 특정한 기질 때문에 다른 행성에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다시 다른 행성에서 육신을 입게 된다.

이런 혼들은 이 땅에 인간으로 다시 육신을 입을 수 있다. 그러면 그에게 사명이 주어 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작은 어린이들의 그리고 가장 작은 어린이들의 죽음을 너희에게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의 혼이 이 땅의 과정을 거칠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과 그들이 더 이상 나를 대적한다고 여길 수 없어서 내가 다른 수 많은 학교에서 그들에게 계속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존재들에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학교에서 이들 대부분은 그들의 과제를 성취시킨다.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들은 영의 나라에서 복된 상태에 도달한다. 그들이 이미 높은 빛의 정도의 도달했으면 다시 사명을 목적으로 이 땅에 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을 수 있다. 한 혼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데는 수많은 환경조건들과 기질들과 그리고 이 전 단계에서 이미 도달한 성장 정도가 역할을 한다.

도달한 성장 정도에서 다시 뒤 떨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뒤 떨어질 수가 있다. 자신의 상태에 맞지 않는 모태에서 육신을 입는다면,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커져서 전적으로 실패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이 혼을 그의 곁형체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높은 곳을 향한 그의 성장이 쉽고 확실한 곳으로 옮겨 준다. 왜냐하면 이 혼은 더 이상 전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때 타락한 자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도울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다. 만약에 존재들이 이 땅의 과정을 거칠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은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창조물이지만 그에게 가장 높은 영적인 성공을 줄 수 있다.

자유의지가 또는 다른 이유가 혼의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지를 나는 이전에 미리 볼 수 있어 나는 혼이 그에게 주어진 운명 속에서 견딜 수 없고 의지적으로 나를 대적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항상 돕는 역사를 한다. 너희 사람들은 이를 판단할 수 없다. 모든 것에는 내 사랑과 지혜 안에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린 아이들의 죽음을 내 편에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영접해야만 한다.

왜냐면 어떤 것도 목적과 의미가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단지 한때 나로부터 떠나간 존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영적인 것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나는 끝 없이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 너희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역사하고 사역하게 하였는지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항상 연약한 자들을 돌봐 주고 모든 방식으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한 혼의 저항하는 정도를 알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그의 저항력이 줄어 들었는지 줄어들 것인지 또는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에 합당하게 나는 혼들을 그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1964년 3월 7일)

이 땅의 과정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나는 혼에게 이미 도달할 성장 정도를 잃고서 뒤 떨어질 위험이 있는지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 안다. 그러면 나는 이 의지가 뒤떨어지는 것을 제외시킬 수 없지만 자유의지를 정할 정도가 아닌 단지 나를 향한 아주 적은 저항을 고려해서 이를 막는다. 그러나 혼은 이 전에 그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써 육신을 입고 살지를 결정해야만 하고 그의 의지대로 이루어진다.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이들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다른 행성에서 다른 조건하에 있게 될지라도 그들의 성장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이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 모든 혼들은 그들이 진지하게 원하면, 그리고 정해진 성장 정도에 이르렀고 자유의지로 이런 혼들에게 주어지는 큰 요구를 성취해야 하는 사명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인간으로 임할 수 있다.

너희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없다. 너희는 내 역사와 사역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피조물들 높은 곳으로 도달하게 도울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을 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이 땅의 삶의 과정과 결과를 안다. 그럴지라도 나는 단지 자원하는 혼들을 돕기 위해 간섭을 하여 나 자신이 단지 나만이 알고 있는 악한 과정에 변화를 시킨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삶을 사는 것은 어렵다. 이 땅의 삶을 영적으로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나는 연약한 자를 만약에 그가 더 이상 강력한 저항을 하지 않으면 항상 돕는다. 어떠한 방식으로 내 도움이 주어지게 될 지는 내 사랑과 지혜에 맡겨 두어야만 한다. 항상 내 피조물들의 마지막 성장을 돕는 것이 내 노력이 될 것이다.

나는 내가 항상 성공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내 자녀들을 원하고 이미 나를 추구하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들을 알아보고 이들에게 알맞게 역사할 것이고 이들이 멸망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많은 죽는 일에 대한 설명. 저세상의 문이 잠김.

B.D. No. 7170

1958년 7월 21일

**훈**들이 저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오랜 기간동안 닫힌다. 이 일을 단지 한 구원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만이 인간으로써 의지의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이 깊은 곳으로 빠지기 때문에 새 땅의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끝 없이 긴 성장 과정을 새롭게 가야만 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종말이 오기까지 저세상 나라의 문이 열려 있다. 다시 말해 그때까지 이 땅을 떠난 존재들이 아직 저세상의, 영의 나라의 영접을 받는다. 그들에게 어두움을 벗어나 빛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아직 있다.

이 가운데 그들이 저세상에서 깊은 곳으로 빠져 굳은 물질 안으로 파문을 받는 같은 운명을 맞이해야만 하게 되지 않게 그들은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이 성숙하지 못한 이 땅의 종말의 때까지 그들의 이 땅의 삶을 유지하여 그들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에게 공물을 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름받으면, 이는 아주 큰 은혜이다. 현재 이 땅에서 자신의 훈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데 무관심하고 그럴지라도 사탄의 무리에 속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종말 전에 그에게 아직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성장 정도를 적게라도 높이기 위한 기회를 주기 원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일찍이 불러들인다. 왜냐면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영적인 존재에게 구원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돌이킬 수 없게 끝나기 때문이다.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은 단지 희귀하다. 왜냐면 영의 나라에서도 영들을 분별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영의 나라에서도 아직 셀 수 없이 많은 훈들이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 머물고 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시도가 헛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굳은 물질 안으로 새롭게 파문을 받는 운명을 맞이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영의 나라에서도 열심히 구속하는 일이 일어난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훈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다시 말해 훈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듣게 강요받지 않는다. 구원 가능한 훈들을 아직 구원하기 위해 모든 시도가 이뤄질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이번 구원시대에 작은 빛이라도 영접할 수 있게 모든 훈들을 돕기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대적자의 손을 벗어나게 해야 하는 전적으로 대적자의 손에 빠진 훈들이 당하는 끔찍한 운명을 피하게 해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훈들의 운명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찍이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해 불러들이면, 이를 통해 어떠한 위로를 얻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이 일이 훈들이 끔찍한 운명을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훈들에 대한 공물의 역사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 모든 훈들은 저세상에서 아주 도우려는 빛의 존재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빛의 존재들은 그들을 한 단계 높은 곳으

로 인도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혼들이 깊은 곳으로 다시 빠질 위험을 벗어나고 이로써 다시 한번 이 땅의 과정을 거치는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종말과 함께 영의 나라에서 영접받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진다.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아 하나님 자신이 심판의 날에 데려갈 작은 무리를 제외하고는 단지 사탄을 향한 사람들이 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말을 체험할 필요가 없는 모든 사람은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은혜를 받고 멸망받을 필요가 없는 희망의 빛줄기가 그들에게 비취졌기 때문이다.

아멘

##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을 허용하는가?

고통이 의로운 사람에게, 불의한 사람에게 임한다.

B.D. No. 2400

1942년 7월 8일

**인**간의 혼을 위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때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이 예견하고 정한 일이다. 많은 고통을 통해서만 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많은 슬픔과 고난을 견뎌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많은 의인들은 이런 혼들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은 다시 그들의 혼의 영적 성장과 온전함을 위해 그들을 섬긴다. 그들은 이웃 사람들을 위해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상태에 처하는 희생을 하도록 강요당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런 고통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에 굴복하고, 동시에 정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과 함께 고통을 당해야만 하고, 불의한 사람의 삶의 결과를 자주 견뎌야 한다. 그러나 그의 혼의 성숙한 상태가 또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여,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에 굴복하게 한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자신 안으로 스며들어, 그의 생각과 느낌으로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어려운 시험의 의미와 목적을 이웃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그들이 세상을 멀리하게 하고, 그들의 혼을 돌보는 일에 헌신한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과 그의 결과를 알려주고, 너무 연약하지만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다.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과 함께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이 땅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힘을 받고 정화가 필요한 이웃 사람만큼 고통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만 한다면, 그에게 저 세상에서 두배의 은혜가 주어지고, 이로써 그가 아직 성숙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이 땅의 삶을 사는 은혜를 헛되게 보내지 않게 된다. 그는 이웃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공로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주고, 모든 벌어드리지 않은 고통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낸 모든 것에 복종한다면, 가장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 싸움의 끝.

B.D. No. 3318

1944년 11월 5일

**하**나님의 음성이 크고 시급하게 들리게 될 것이고, 민족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자연의 권세를 통해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의 판결에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판결은 정당할 것이고 큰 비참함을 야기하고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47/61

그들의 불의함을 인정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극도로 슬픈 일이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막을 수 없다. 왜냐면 어떤 일을 통해서도 더 이상 사람들의 의지가 행하는 일을 흔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가 피하게 하거나, 끝낼 수 없는 일을 통해 방해를 받아야만 하고, 그러므로 큰 놀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눈 앞에 죽음을 보고 시간의 종말을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인류는 변하지 않고 하루 하루가 지나간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아직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사건들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왜냐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 준비되고 있고, 이 땅의 내부가 요동하고, 하나님이 자연의 권세에게 자신을 묶임으로부터 풀어주는 자유를 주는 순간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끝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중지를 명한다. 끔찍한 일이 끝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끔찍한 고난에 빠지고 풀려난 자연의 권세 앞에 완전한 어쩔줄 몰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탈출하거나 자연의 분노를 멈추거나 줄일 수 없다. 그들은 자연에 의해 당하게 되고, 그들의 위험 가운데 자신을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단지 한 구세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는 가운데 순복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견딘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의지가 일어나게 하는 파괴의 순간에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를 고칠 수 없고, 인간의 의지를 통한 이 땅의 위험이 계속하여 커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끝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끝을 정한다.

사람들을 경직시키는 공포의 외침이 이 땅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불행의 규모가 모든 사람이 다시 반복될 까봐 어찌할 바 모르게 하고 떨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인류 전체가 체험하고, 자신의 심판의 판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죄를 지은 자들과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면 모든 싸우는 사람들이 아직 자신이 옳다고 믿지만, 그러나 단지 권세로 인정을 받고 공의로 인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비열한 행동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수 없다. 왜냐면 비열한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같은 일로 사람들을 벌할 것이고, 단지 그의 파괴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 이로써 그들이 이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 왜냐면 아직 자유가 없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런 상태를 고통이 충만하게 느끼는 영적인 존재가 또한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비록 인간의 의지를 통해 자유롭게 되었을지라도, 존재는 자신의 자유를 기뻐할 수 없다. 왜냐면 자유가 완전한 자유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활동할 가능성은 빼앗기고, 영적인 존재가 이에 대해 분노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는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곳에서 일할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특별하게 아직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와 연결을 이루고,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걸형체를 폭파시키려고 시도한다. 이 일 가운데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가 도움을 준다.

이로써 사람들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다시 일하도록 강요한다. 이로써 성장과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창조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그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통해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에게 방해하지 않고, 이 땅 속의 물질이 활동한다면, 영적인 존재가 빛을 향해 추구하고 자신의 걸형체를 폭파시키려고 한다면 동의한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자신의 뜻을 철회하고 영적인 존재의 의지에 자유를 준다. 그럴지라도 영적인 존재가 아직 완전히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엄청난 규모의 파괴의 역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자신의 의지를 능가하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이 완전히 허용하는 의지에 대적이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고, 그들의 파괴하는 싸움을 멈추지 않고, 악마의 포로가 되고, 악마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들은 항상 더욱 악한 세력에게 빠지고, 이런 일을 그들의 역사와 조치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멸망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전능함이 분명하게 역사한다.

하나님은 이 땅과 함께 인류를 흔들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변화되게 한다. 왜냐면 때가 아직 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강력하고 강하게 울리게 하고 사람들에게 부르짖는다: "너무 늦기 전에 너희의 혼을 파멸로 몰아넣는 분노를 멈추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너희의 창조주요 유지자를 기억하라. 그의 사랑을 발로 짓밟고 있는 너희는 너희의 종말을 생각하라. 왜냐면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아멘

다가오는 자연재해.

B.D. No. 8033

1961년 11월 5일

**머**지않아 너희는 이미 내 말이 진리라는 것을 체험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계속 하여 알려 준 것처럼 내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내 음성은 강력하게 울리고 세상을 혼돈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실제 제한 된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주 강력한 크기로 인해 이를 비로소 알게 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왜냐면 이 재해를 당한 지역과의 모든 연결이 초기에는 끊기게 되기 때문이다. 끔찍한 고요함이 재난 지역에 임할 것이다. 왜냐면 첫 놀람이 지나가기까지 모든 연결이 끊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후 세상은 자신들이 어떠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체험할 것이다. 인류에게 나로부터 아주 강력하게 대화 요청을 받아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나지막하게 울리는 음성에는 자신을 닫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위로 부터 내 종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지는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음성이 듣지 못하게 되지 않게 표현해야만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심판이 사람들에게 오게 해야만 한다. 그들이 일찍이 삶을 마친다 할지라도 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이 진리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너희의 의지를 활용해야 한다. 왜냐면 이런 재해 이후에도 너희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가 나에게 향하게 너희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끔찍한 자연재해가 사람들이 나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왜냐면 고난이 아주 크고 어느 편에서도 도움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나에게서는 가능하다. 사람들이 이를 생각하고 진리와 영으로 나를 부르면 그는 기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분명하게 나를 계시를 하여 그는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을 깨닫고 깊은 믿음과 겸손한 복종으로 자신을 나에게 향하게 할 것이다. 혼들이 나에게 달아오게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내가 시도하지 않고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안다. 그러므로 특별한 구원의 수단을 활용해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혼들의 상태를 아는 내가 바로 이런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편에서 행하는 단지 사랑의 역사이다. 나는 이런 혼들이 그들에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고통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운명을 주는 대적자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 사람들아 무슨 일이 일어나던지 무슨 일이 나로부터 허용이 되었던 간에 항상 단지 내 사랑이 나를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라. 모든 사람의 운명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도 나에게 너무 가치가 없지 않고 성장 정도가 너무 부족하지 않다. 나는 현재 이 땅의 과정을 가고 있는 모두를 위해 돌 보아준다. 왜냐면 내가 너희가 다시 새 땅의 창조물이 되는 새로운 파문을 받는 운명으로부터 너희를 지켜 주기를 너희가 마지막 멸망을 피할 수 있게 항상 단지 너희의 생각이 나에게 향하게 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내 개입이 피해를 당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끔찍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올바르게 여긴다. 왜냐면 영적으로 보면 일어나는 일은 심판의 행위가 아니고 구원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세상적으로 잃는 것은 너희 혼이 도달할 수 있는 이득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희생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저세상에서 빛에 도달할 수 있는 높은 것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 긍휼을 기대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분명하게 나에게 대적자에게 빠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변화될 수 있다고 깨닫는 너희는 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왜냐면 종말의 때까지 시간이 아주 짧다. 종말이 다가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고통을 줄지라도 이런 일 후에 일어날 종말을 그들이 준비할 수 있게 나는 내 말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야 할 너희에게 종말 전에 마지막 경고와 권면으로써 증표를 줄 것이다.

아멘

**세**상 법에 의해 사람들이 가장 큰 영적인 충돌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때가 멀리 있지 않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촉구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용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에 관한 질문과 지금까지 무시해 왔던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땅의 권세에 의해 압제당하고, 믿음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질 지 스스로 분명하게 정하게 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 즉 내면의 음성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충실 하라고 훈계하고, 그가 이런 내면의 음성을 통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재촉을 받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런 내면의 훈계자와 경고자가, 아직 의심이 있고, 의지가 너무 약한 사람에게 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모든 사람을 도울 것이고, 그들에게 믿는 사람들을 보내, 믿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심장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고난과 위험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이고,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할 것이다. 사람은 또한 어떤 결정을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를 돌보는 빛의 존재들이 그를 돕고, 그의 생각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들은 망설임이 없이 세상을 택하고, 그들의 혼을 끔찍한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도구를 통해 스스로 그들에게 직접 대항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힘을 알도록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반대하지 않는다면,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증거를 그들에게 제공하면서 미리 경고하고, 이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싸움을 허용한다. 하나님은 믿음의 싸움이 사람들의 타락을 나타내는 형태로 일어나도록 허용한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 때에 믿기 위해 큰 자극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의 권세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면, 이 땅의 권세가 하는 그런 일에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 받아야 하고, 이런 결정이 혼에게 아주 중요하고, 이런 결정이 사람들이 죽게 되면, 영원 가운데 생명으로 깨어날지, 죽음으로 깨어날지 운명을 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이 이 전에 깨닫게 되도록 노력하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불확실할 때 그들을 돕는 세상의 영적인 증들을 통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의지에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상 편에서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재촉하는 일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할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아멘

너희 인간 스스로 이 땅의 마지막 파괴의 역사인 이 땅을 분해시키는 일을 일으킨다. 나는 이를 막지 않는다. 왜냐면 나는 이런 파괴의 역사를 통해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영적인 존재들이 새 땅의 새로운 형체 안에서 자신들의 성장 과정을 지속해 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너희에게 자주 말해 주었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이에 대한 믿음이 아주 적다.

왜냐면 모든 일어나는 일을 너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성장기간의 끝이 이루어 지고 있고 귀환의 역사가 다시 질서의 법칙 아래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로 이어진다. 이로써 옛 땅이 파괴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성공을 다시 볼 수 있다. 내 대적자는 그 자신이 스스로 권세가 없는 창조물을 파괴하는 일을 사람들로 하여금 행하게 함으로써 묵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을 자유롭게 해서 자신의 권세 아래 두기 위해 그의 마지막 사탄적인 역사를 행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사주해 모든 종류의 시험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무지로 실패하면서 큰 결과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의 결과를 연구하지 않고 실험을 강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스릴 수 없는 힘을 자극해 종말을 맞이한다. 이와 함께 이 땅의 창조물들도 강력한 파괴를 당한다. 지구의 전 표면이 전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은 파괴되게 될 것이고 지구 내부에까지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이로써 가장 큰 규모의 파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전에 내가 이 땅에서 평화로운 영역으로 이주시킨 아주 작은 무리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이를 지켜보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내가 이를 통해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굳은 물질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아직 묶여 있는 영적인 존재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으면 나 자신은 절대로 이런 파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사람들이 질서의 법칙을 어기지 않았으면, 항상 그들의 이 땅의 섬기는 과제를 성취시켰다면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계속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지 않는다. 이로써 내 대적자는 사람들에게 대한 큰 영향력이 있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이익을 희망하는 일을 시작하게 자극했고 이로써 묵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희망했다. 나는 그를 막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내 대적자가 자극하려는 일을 실행할지는 항상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를 항상 올바르게 활용할 줄을 안다. 왜냐면 어두움의 세력도 진실로 나와 내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섬겨야만 하면서 동시에 비록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귀환시키는 역사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영원으로부터 인간의 의지의 방향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의지에 기초해 내 구원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나는 언제 이 땅에서 영적인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때가 되었는지 안다. 비록 나는 언제 아직 묵임 가운데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자유롭게 될 때가 되었는지 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잘못 된 방향을 향한 의지로 내 대적자에게 향하고 자원해 그의 도구가 되어 거대한 파괴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막지 않는다. 왜냐면 대적자 스스로는 창조물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물질도 분해시킬 수 없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그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다시 얻으려고 한다. 사람들은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물질이 분해되는데 기여를 한다. 처음에는 수많은 시험을 통해 그러나 물질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규모로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허용해 비록 스스로 영적으로 낮은 상태에 도달해서 새로운 파문을 가는 것을 필요하게 만든 모든 인류를 희생시킨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묶여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자유롭게 되게 한다. 내 대적자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언젠가는 완성에 도달해야 할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을 도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구원계획은 말씀과 성경을 통해 예언 된 대로 실행이 될 것이다.

아멘

삶에 불화가 필요하다....

B.D. No. 0770

1939년 2월 8일

**가**장 사소한 일도 사람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은 없다. 모든 사건에서 너희 자신을 증명한다면, 성공은 크거나 또는 적게 축복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이 땅의 삶은 너희의 저항력을 시험해야 하는 계속되는 시험과정이다. 너희를 분개하게 하고, 귀찮게 하고, 또는 혐오감으로 가득 찬 것을 너희는 온유함과 인내심으로 변화시키려고 해야 한다.

너희는 이런 불화를 마음대로 제쳐 놓을 수 없다. 그런 일은 너희의 혼을 위한 진보가 아니다. 단지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너희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너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불화의 목적으로 봐야 한다. 너희가 시련에 직면할 수 없는 곳에서 뒤로 물러 설 위험이 있다. 매일 너희에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 목적을 위해 너희에게 부과된 시험에 대항을 해서는 안되고, 너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 너희에게 다가오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순복해야 만한다.

왜냐하면 투쟁이 없는 삶은 또한 혼이 성장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너희 자신을 극복하는 일이 너희에게 성공을 가져다줄 수 있다. 그러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은 단지 나태함과 약한 의지를 줄 수 있고, 그런 삶은 혼에게 많은 위험을 안기고, 사람에게 부여되는 어려운 운명이 혼에게 단지 성공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혼이 투쟁하고 극복하는 가운데 강해지고, 혼의 사슬로부터 훨씬 더 빠르게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이 없는 존재는 악과의 싸움을 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 그는 스스로 극복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대적자의 세력에 의해 정복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만한다. 이런 고통은 일상 생활의 불화보다 훨씬 더 어려운 종류의 고통이다.

단지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혼에게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만약에 너희에게 힘이 약해졌을 때, 너희의 약점을 구세주 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신을 도와주기를 구한다면, 너희는 모든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은 너희가 도움 없이 머물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말은 아주 사랑이 충만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왜 두려워하고 망설이느냐? 너희가 단지 주님께 그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항상 그의 강함으로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하는 곳에서, 너희는 왜 너희가 약하다고 느끼느냐?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을 버리라. 단지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며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억압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이 스스로 해결이 될 것이다. 단지 그런 삶의 환경이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실제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일과 반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너희를 강박하고, 사랑 없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항상 단지 너희안의 사랑이 말하게 하는 일에 주의하라. 왜냐하면 유일하게 단지 사랑이 극복하게 하고, 그런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기 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심장을 더 깊은 사랑으로 형성하라. 그러면 너희 주변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사랑을 통해 너희를 짓누르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인생에서 어려운 모든 일을 사랑의 능력으로 극복한다면, 혼도 또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모든 일이 온전하게 되도록 돕는다.

B.D. No. 6015

1954년 8월 4일

**너**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일이 무엇이든 이일이 너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너희를 섬긴다. 그러나 너희가 만나는 모든 일을 활용할지 여부는 너희 자신에게 달려 있다. 너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너희의 성장을 촉진한다. 반면에 잘못된 자세는 너희의 성장을 막는다. 올바른 자세는 너희가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와 연결을 이루려고 시도하거나 또는 너희가 이런 연결을 이미 이뤘다면 굳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축복이 되고 또한 가장 큰 고난도 너희에게 축복이 된다.

영적인 성장은 항상 단지 투쟁하거나 극복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자신을 순종시키면서 극복하는 일을 통해 가능하다. 이 일을 위해 너희 혼자 힘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내 힘을 요청해야만 한다. 내 힘을 요청하는 일은 나와 연결을 전제로 하고 이런 요청이 또한 너희의 영적인 성장을 보장한다. 나는 진실로 너희를 나에게 이끌고 너희의 생각이 나에게 향하게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너희가 스스로 나를 찾지 않으면 나는 너희가 나를 찾도록 너희 심장에 제촉을 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역사하여 나로부터 고난이 너희에게 오게 하거나 또는 너희가 의지적으로 이미 나에게 속해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긴밀하게 붙잡기를 원하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러면 너희에게 고난이 임하게 된다.

나와의 연결이 너희 혼이 점점 더 영화되는 일을 보장한다. 왜냐면 내가 거하는 곳에 다른 모든 것이 함께 할 수 없고 내 임재를 갈망하는 곳에 세상적인 욕망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가 위험에 처해야만 하는 일과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일과 너희 자신이 연약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을 허용하면 나는 단지 너희 혼이 점점 더 영화되는 일에도 달하기를 원한다. 힘을 주는 분은 항상 너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내 힘은 단지 너희의 의지 자신이 열어야만 하는 열린 그릇을 발견할 때 흘러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너희 자신이 너희에게 넘치게 제공되는 내 힘으로 고난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 운명에 순종하라.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내가 모든 일 위에 있다는 것을 알라. 오늘 너희를 아직 짓누르게 하는 일이 너희가 나에게 너희 자신을 의탁하고 너희가 기도로 나와 연결을 이루면 이로써 모든 고난의 영적 목적이 이제 성취되어 너희가 다시 한걸음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내일이 너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 나는 내 모든 자녀들이 나를 추구하기를 원한다.

아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 돌봄이 너희를 뒤따른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멸망을 원하지 않고 너희의 축복을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어둠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빛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높은 곳으로 이끌려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너희를 비참함과 위험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 어둠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혼자서는 성장을 위한 힘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수단과 내 수단의 효력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잔인하다고 쉽게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내 사랑을 믿으라. 사랑이 내가 역사하게 하고 내가 모든 일 가운데 항상 단지 너희를 축복되게 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 내가 단지 일어나는 일이 주는 효과를 안다. 내 운명적인 개입이 없다면, 너희가 어떤 길을 갔을 것인지 내가 단지 알고 그런 길이 오류로 인도한다면, 내가 단지 이를 안다. 내가 이제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일어나게 하는 일은 항상 내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고 너희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게 보일지라도 그런 일이 축복되게 역사할 것이다.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내 편에서 고통이 가득한 개입이 긴급하게 이뤄질 것이고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될 것이다. 내 손이 항상 자주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게 될 것이고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혼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운명을 자신의 손에 가지고 있는 분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비록 그들이 단지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인정하게 되고 하늘과 땅을 운행하는 하나님인 인도자를 믿게 된다. 그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믿음이 그들을 계속 인도할 것이다.

가장 작은 피조물도 내 사랑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단지 모든 존재의 생명을 보장한다. 이로써 존재들이 언젠가 자유의지를 가진 단계에 들어서게 하고 마지막 이 땅의 과제를 성취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이미 이런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전의 그의 이 땅의 과정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얼마나 더 많이 도와주겠느냐?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의 이 땅의 길의 절벽을 알고 사람이 이런 절벽을 극복하거나 또는 극복하는 일에 실패할 위험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뒤 따르고 돌봐줘 그가 물러서게 하거나 또는 그를 다른 길로 계속 인도한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가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하는 너희는 내가 항상 돌보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한 내 아버지의 돌봄이 이웃이 그에게 행할 수 있는 돌봄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고아로 만드는 일과 가정을 먹이는 사람을 빼앗는 일과 사람들이 소유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는 일을 허용할 수 있는지 너희에게 의심스러운 질문이 생기면, 너희는 항상 이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모든 돌보는 일을 맡을 수 있다. 나는 외롭고 홀로 있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찾아야만 한다.

그들이 가장 큰 위험 가운데 나와 연결을 이루는 일이 내가 바로 원하는 일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믿음을 알게 해야 할 말들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이 땅의 고통이 사람들을 짓누

를 때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지지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권세에 대한 의심 위에 의심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심한 위험의 시간이 다가 온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길을 나에게 향해야 한다. 나는 진실로 위험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도울 것이다.

내가 단지 거두어들일 수 있고 줄 수 있다. 너희 사람들이 이를 믿는다면, 너희는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 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 너희에게 좋고 유익하게 보이는 것들이 항상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말라. 내 길은 자주 다르다. 그러나 내 길은 안전하게 목표로 인도한다. 이런 믿음으로 항상 나에게 다가오라.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내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운명적인 일. 해결 수단.

B.D. No. 6290

1955년 6월 21일

**내**가 너희가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해야만 하는 상처는 진실로 분노와 사랑이 없는 표현이 아니고 또한 너희의 잘못에 대한 공의한 처벌의 증거가 아니다. 그런 상처는 단지 너희에게 책임이 있는 질병을 제거하는 치료의 수단이고 너희의 혼이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너희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질서에서 벗어났고 벗어나지 않았다면 단지 행복과 축복이 너희의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축복을 준비해주시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나 너희가 내 계명에서 벗어나는다면, 너희 자신이 이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나 너희를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게 하고 너희를 다시 제한이 없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모든 일을 시도한다는 것을 믿으라.

이 땅에서 더 많은 고난과 슬픔과 비참함과 질병이 명백해질수록 내 계명을 어기는 일이 더 심해지고 너희 사람들 스스로가 위험을 통해 너희가 어떤 저조한 상태에 도달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진실로 사람들이 내 영원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심한 재앙을 당하기 보다 축복되기를 원한다. 비록 각 사람은 자신이 자신에게 닥친 불행만큼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너희 사람들은 연관관계를 모르고 너희는 또한 불행이 영향을 미친 범위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개인의 운명이 누가 다시 성숙하도록 돕는 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또한 너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전에 너희가 자발적으로 무엇을 감당하겠다고 제안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짐을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게다가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보이면 내가 또한 십자가의 운반자로 나 자신을 제공한다. 그러나 너희는 안타깝게도 자주 내 도움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짐 때문에 원망하고 자주 짐이 너희에게 너무 무겁다고 불평한다. 사랑이 너희가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 자신을 드리도록 움직였다. 그러나 이 땅의 삶에서 너희의 의지를 통해 나에게 속했다고 믿는 너희가 왜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조용하게 원망하지 않고 너희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너희가 순종하는 가운데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순종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일이 너희에게 축복이 될 것을 깨닫는 가운데 항상 내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운명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던 너희는 너희의 운명에 반항하지 말라. 너희가 나에게 속하기 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 일이 단지 너희의 구원을 위해 도움을 주고 내 영원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일임을 항상 확신하라. 너희가 언젠가는 이를 깨닫고 나에게 감사할 것임을 확신하라. 내가 너희가 어려움들과 운명적인 일들이 함께 하는 이 땅의 길을 가게 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당한 모든 일들의 이유가 내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라. 왜냐면 내 사랑은 항상 너희가 축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일어나는 가장 작은 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근거를 두고 있다.

B.D. No. 7145

1958년 6월 15일

어떤 것도 너희가 내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의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항상 단지 그의 지혜로 일어나는 가장 작은 모든 일도 생각하고 그의 사랑이 항상 이 일을 통해 한 가지 목표에 도달하려고 시도하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생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내 구원계획을 개관해볼 수 없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영원으로부터 미리 바라본다. 나는 모든 일어나는 가장 작은 일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항상 이 일을 통해 혼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일을 나에게 맡기고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너희는 항상 너희에게 아직 아주 의심스럽게 보일지라도 내 사랑과 지혜와 권세가 뒤에 함께 함을 알아야 한다. 왜냐면 어두움의 세력도 내 의지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세력들이 가장 악한 의도를 따른다 할지라도 내 허용이 먼저 그들이 실행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나는 이런 허용이 너희를 위해 축복된 것으로 깨닫는다. 때문에 나는 이런 세력들이 그들의 역사를 실행하는 일을 전적으로 막지 않는다. 너희는 단지 내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믿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아직 깨달음의 빛 가운데 있지 않는 동안에는 많은 일들을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한때 내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는 것을 내 사랑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음을 너희는 믿어야 한다. 아주 굳은 확신을 가지고 내 사랑을 믿을 수 있으면, 모든 일을 이런 입장에서 보는 일이 너희에게 쉽게 될 것이다. 내 사랑 안에서 너희가 보호받음을 알고 있는 안전한 느낌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너희에게 내적인 평안을 줄 것이다.

너희는 항상 단지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일만이 너희에게 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적으로 믿는 가운데 나에게 너희 자신을 드러 헌신해야 한다. 나에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제한이 없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사람들 위에 최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단지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이 존재 자체가 사랑과 지혜와 권세라는 확신에 도달할 때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너희 모두는 이런 확신을 얻으려고 해야 한다. 이 확신에 만약에 일어나는 일이나 체험이 너희에게 이해할 수 없게 보이고 너희가 이 일을 내 사랑과 지혜와 권세와 일치시킬 수 없을지라도 너희가 내 온전함을 의심하지 않는 일이 포함 된다. 나는 모든 것 위에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 나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빛이 충만한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다스린다. 내가 서로 다른 세력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부여한다는 일은 단지 내 사랑과 지혜와 권세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결국에 가서는 모든 일이 단지 올바르게 활용하면, 완성에 도달하게 도와준다. 너희 사람 안에 이런 깊은 믿음이 자라면, 너희는 가장 어려운 운명적인 일을 통과하는 인도를 받을 것이다. 왜냐면 가장 어려운 운명적인 일이 너희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항상 내 사랑 안에서 보호받음을 알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진실로 너희에게 축복을 주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행할 수 없다. 언젠가 너희 영이 눈이 밝아지면, 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짐을 안겨준 많은 불필요한 염려와 생각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사랑과 지혜와 권세는 진실로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각각의 사람들을 돌보고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차별대우 받는다고 느낄 필요 없다. 모두에게 그의 혼의 구원을 위해 같은 돌보는 일이 행해지고 있다. 나는 모두를 돕기 원한다. 나는 모두를 나를 위해 다시 얻기 원한다. 나는 모두에게 아버지의 집을 향한 길을 보여 주기 원한다. 그러나 적용하는 성공하게 만드는 수단은 모든 사람에게 서로 다르다. 그러나 너희 주변에 일어나는 일 뒤에 같은 사랑과 지혜와 권세가 항상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염려하지 않고 나에게 의뢰하면, 너희는 실제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행한 것이다.

왜냐면 나를 향한 너희의 모든 헌신이 나로 하여금 내 뜻이 너희 안으로 흘러 가게 하고 그러면 너희는 내 뜻대로 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귀환한 것이다.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은 이제 성공적으로 끝난다. 너희는 이 땅의 삶을 영의 나라의 삶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번개처럼 빠르게 모든 연관관계를 깨닫고 너희가 이 길을 가게 만든 나를 단지 찬양하고 나에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내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생명력 있게 인정하는 것이고 너희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 단지 짧은 거리 만이 남아 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

B.D. No. 7773

1960년 12월 15일

**너**희는 고난과 위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너희에게 단지 축복을 준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에게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면, 한 분이 너희가 십자가를 지게 도울 것이다. 너희는 모든 위험 가운데 이 한 분을 신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는 분이고 십자가를 지는 분으로 남을 것이다.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간 그는 스스로 십자가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그는 자신에게 큰 짐이었고 기절을 했던 그는 너희를 위해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왜냐면 그는 십자가를 짐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을 어깨에 짊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었다. 이 사랑은 너희에게 항상 영원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모든 육신적인 혼적인 위험 가운데 너희를 도와주기를 구하면, 이 사랑은 너희가 십자가를 지게 돕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떠한 위험이나 어떤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는 복종하면서 실제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고 인내하며 져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항상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분이 항상 너희 곁에 함께 간다. 그는 너희가 짐을 지는 일을 도와 짐이 너희에게 항상 견딜만 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는 길을 가면, 이는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라.

너희가 너희에게 빛이 비치는 것을 막는 많은 불순물들을 버리는 것임을 잊지 말라. 고난이 혼의 불순물을 버리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너희에게 비칠 수 있게 되면, 너희가 언젠가 고통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단지 너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너희보다 앞서 십자가의 길을 간, 너희에게 자신을 따느라고 요구하는 분을 생각하라.

그의 말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이다. 만약에 너희가 그의 말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십자가 지는 분을 따르면, 단지 너희 혼을 구원을 받음을 그는 알았다. 그러나 그는 너희가 자주 연약하고 절망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너희들 곁에 함께 가고 필요하면, 너희에게서 십자가를 넘겨받는다. 이에 대한 확신이 너희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만 하면, 너희를 강하게 해야 한다.

왜냐면 고난과 고통은 이 땅에서 너희의 혼이 성숙함에 도달하게 돕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에 육신을 벗어나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너희는 언젠인가 고난과 고통에 대해 감사할 것이다.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자신의 자녀들에게 향한다.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정해 그의 혼에게 최선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운명에 복종하여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라. 너희의 작은 십자가를 지라. 그러나 항상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간 분을 생각하라. 왜냐면 그는 너희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아멘

운명적인 인생은 성장에 도움이 된다.

B.D. No. 7524

1960년 2월 17일

**내** 편에서 너희에게 모든 성장할 기회가 주어진다. 왜냐면 너희의 전 인생의 경로를 내가 정해 너희에게 너희의 혼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준다. 항상 또 다시 이런 기회가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너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너희의 의지를 활용해야만 하는 기회, 너희 자신의 입장을 결정해야만 하는 기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계명에 너희의 의지와 행동이 얼마나 합당한지가 이 계명이 너희의 모든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에 근거가 되었는데 지가 결정적이다. 너희 인생의 운명은 너희가 사랑을 행하려 하는 자극을 받을 수 있게 짜여 있다.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너희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 이로써 너희는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희 성품이 변화되게 돕는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너희가 성품을 변화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역사한다. 너희 인생의 운명은 내가 정해 놓았지만 그러나 항상 너희에게 최상의 도움이 되고 이 땅에서 완성을 위해 필요한 너희 의지가 선하면, 너희의 혼이 성장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만나는 모든 것 가운데 항상 단지 너희를 인도해 너희 혼에 유익이 되게 하는 내 손길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운명적으로 닥치는 모든 일들을 너희는 복종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영원전부터 그렇게 계획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진실로 사랑과 지혜 안에서 계획되었고 너희의 구원을 위해 항상 사랑과 지혜 안에서 실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실제 불행이란 없는 것이다. 비록 세상적으로 불행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단지 영적으로 보면 너희 혼을 위한 성장기회이다. 이런 불행이 너희에게 구원이 되고 복되게 너희 혼에 역사하는 일은 전적으로 단지 너희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가 나와 연결되길 구하고 굳게 연결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그가 이제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에게 복이 될 수 있다.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나와 긴밀히 연결된 사람에게는 좋은 효과가 있다. 그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힘들게 보이는 모든 체험들을 무사히 넘길 것이다. 그가 나와 긴밀히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가 나와 연결되어 있고 연결을 유지할 때 그의 운명은 스스로 해결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나와 연합되는 것이 모든 일어나는 일의 목표요 목적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찾을 때까지 오랫동안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 만약에 그가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도움을 구할 때 나는 그의 모든 어려움들이 그에게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가 항상 단지 이 땅에서 그의 성장을 도우려고 함을 그래서 사람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그의 성장을 돕는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얼마 동안 이런 운명적 처지에서 고통 당해야 하는 지는 그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가 스스로 나와 긴밀한 연결을 이룰 때 이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 단지 깊은 연합만이 가장 중요함을 생각해야 한다. 그가 전에 자유의지로 떠났던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함을 생각해야 한다.

아멘